

양천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2025년 ~ 2029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목동제일교회

양천해누리복지관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지난 5년간 ‘섬김과 사랑 안에서 장애인이 살맛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라는 미션을 품고 걸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년을 향해 나아가며,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미션을 세웠습니다. 이 변화에는 장애인의 삶을 단순히 ‘살맛나는 세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작지만 특별한 ‘별일 있는 오늘’이 이어지도록 돕고자 하는 우리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양천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은 이러한 새로운 미션을 실천하고, 다가올 10년을 디자인하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국가와 서울시, 양천구의 정책 흐름에 맞추고, 지역사회와 복지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는 우리 복지관이 지역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사람이음, 채움생활, 행복동행, 자립성장, 배움문화, 건강누리, 함께돌봄, 누리지원, 그리고 신월센터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와 일상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중단기 발전계획은 단순한 문서가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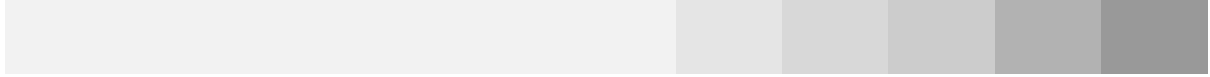
끝으로, 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TF 위원들과 직원들,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용자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앞으로도 모두의 ‘별일 있는 오늘’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며, 양천구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10년을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양천해누리복지관장 김경환

C O N T E N T S

I. 상위계획 정책방향	5
1. 국가 정책방향	7
2. 서울시 시책방향	10
3. 양천구 시책방향	14
II. 계획수립 배경 및 현황	17
1. 계획수립 배경	19
2. 양천구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인 현황	20
3. 복지관 이용 현황	24
4. 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26
III.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	31
1. 시설 운영계획	33
2. 중점 추진방향	35
3. 중단기 발전계획	36
4. 조직변화	39

IV. 분야별 5개년 추진계획	43
1. 사람이음사업	45
2. 채움생활사업	52
3. 행복동행사업	58
4. 자립성장사업	64
5. 배움문화사업	72
6. 건강누리사업	79
7. 함께돌봄사업	88
8. 누리지원사업	93
9. 신월센터	100
V. 부록	107
1.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활동	109
2.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	111
3.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결과	122
4. 중단기 발전계획 평가 체계(안)	126
5. 중단기 발전계획 지역사회 공유	127
6.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137



I. 상위계획 정책방향

- 1. 국가 정책방향**
- 2. 서울시 시책방향**
- 3. 양천구 시책방향**

가. 정책 여건 및 기본 방향

1) 정책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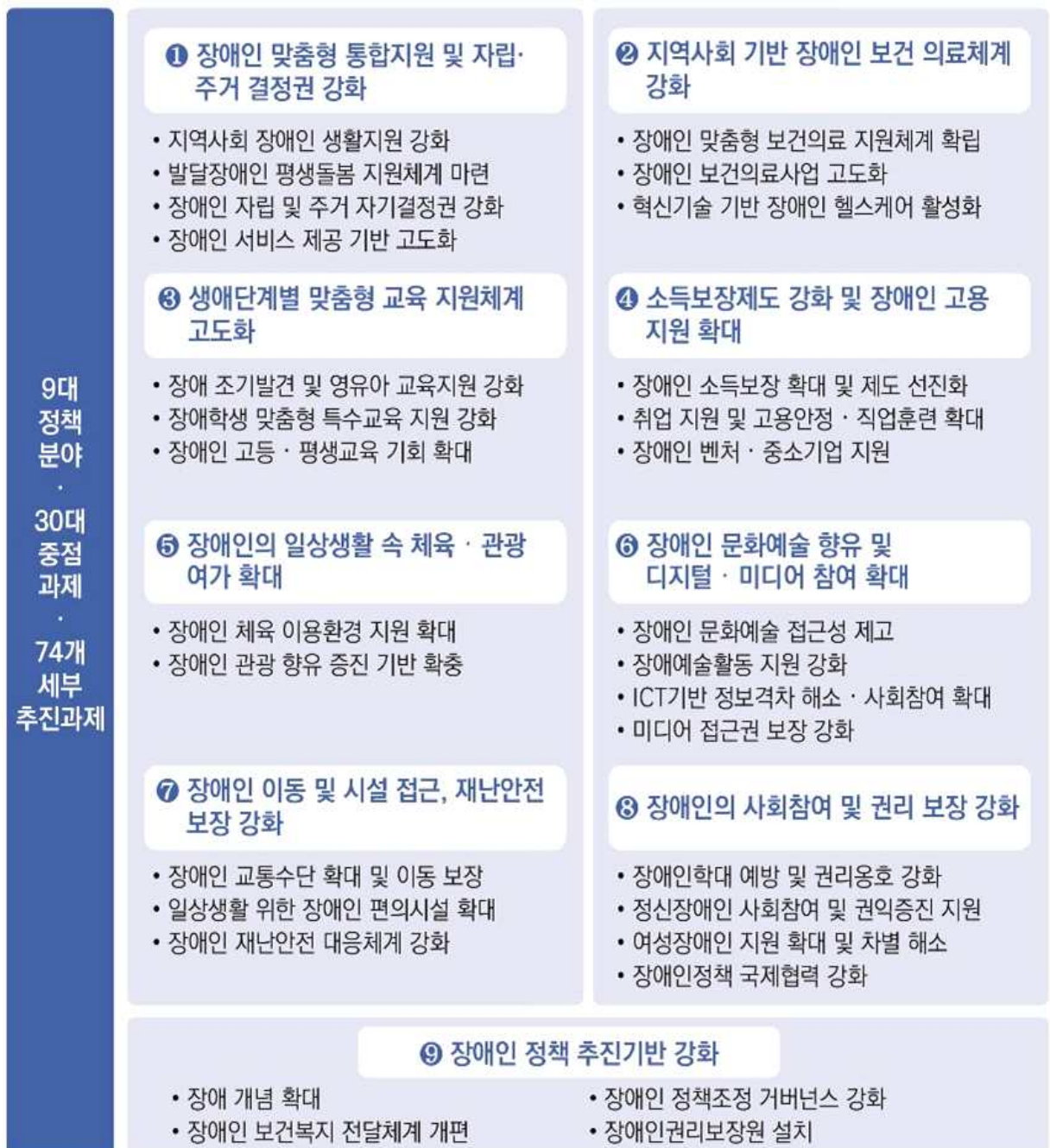
- 전체 등록 장애인구는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고령화, 1인가구, 장애아동 및 발달장애 증가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음
- 소득, 의료, 주거, 고용 등 전통적인 복지 수요 외에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 수요도 강하게 표출
-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확충 등 이동편의 제공 확대에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제약 요인은 여전한 수준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후 국제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은 수동적 보호에서 능동적 참여 중심 지원으로 전환 추세

2) 기본 방향

- 약자복지 :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사각지대 없이 더욱 두텁게 지원할 필요
 - 최종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지원체계 구축, 장애아동 조기발견 및 교육 지원, 장애연금 확대 등 맞춤형 돌봄.소득 지원강화
- 사회서비스 고도화 : 개인예산제 도입, 활동지원 확대 및 고도화 등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차별없는 사회 구현 추진
 - 기존 돌봄제도를 정교화하고 주택.주거지원 확대, 건강권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글로벌 스탠다드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평등, 차별금지, 사회참여 등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필요

나. 비전 및 추진전략

비전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
목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해소와 삶의 질 향상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자복지) 취약계층인 장애인에 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 • (사회서비스 고도화) 수요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글로벌 스탠다드) 전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보장 확대



다. 주요 추진내용

분야	주요 성과	'23년	➡	'27년	비고
복지 서비스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지원 강화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모의적용	➡	본사업('26)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도입 연구	➡	서비스 시행 ('24.6)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14만명	➡	17만명	연 8천명 규모 ↑
	장애아동 발달재활 지원대상	7.9만명	➡	10만명	연령상향(6→9세) 검토
건강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보건의료체계 강화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59.4%	➡	61.4%	57.9%('20)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	본사업('25)	3차 시범사업('21.9~)
보육·교육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통합교육 연수 이수율	82%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수	53개	➡	100개	32개('22)
경제활동	소득보장제도 강화 및 장애인 고용지원 확대				
	장애인 빈곤율	39.0%	➡	37.0%	39.6%('20)
	장애인 고용률	50.6%	➡	51.9%	50.3%('22)
체육·관광	장애인의 일상생활 속 체육·관광 여가 확대				
	생활체육 참여율	28%	➡	34%	26.6%('22)
	열린관광지 조성	132개소	➡	252개소	112개소('22)
문화예술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디지털·미디어 참여 확대				
	예술창작 참여율	1.2%	➡	1.6%	1.1%('20)
	디지털 정보 활용 수준	82.0%	➡	83.6%	81.5%('21)
이동편의	장애인 이동 및 시설 접근성 강화				
	특별교통수단 도입률	92%	➡	100%	86.0%('21)
	편의시설 설치대상 확대	50㎡이상	➡	50㎡이하	
권익증진 정책기반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리 보장 강화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이행률	94%	➡	98%	92.8%('21)
	장애 개념 확대	의학적 장애	➡	사회적 장애	

가. 추진 배경 및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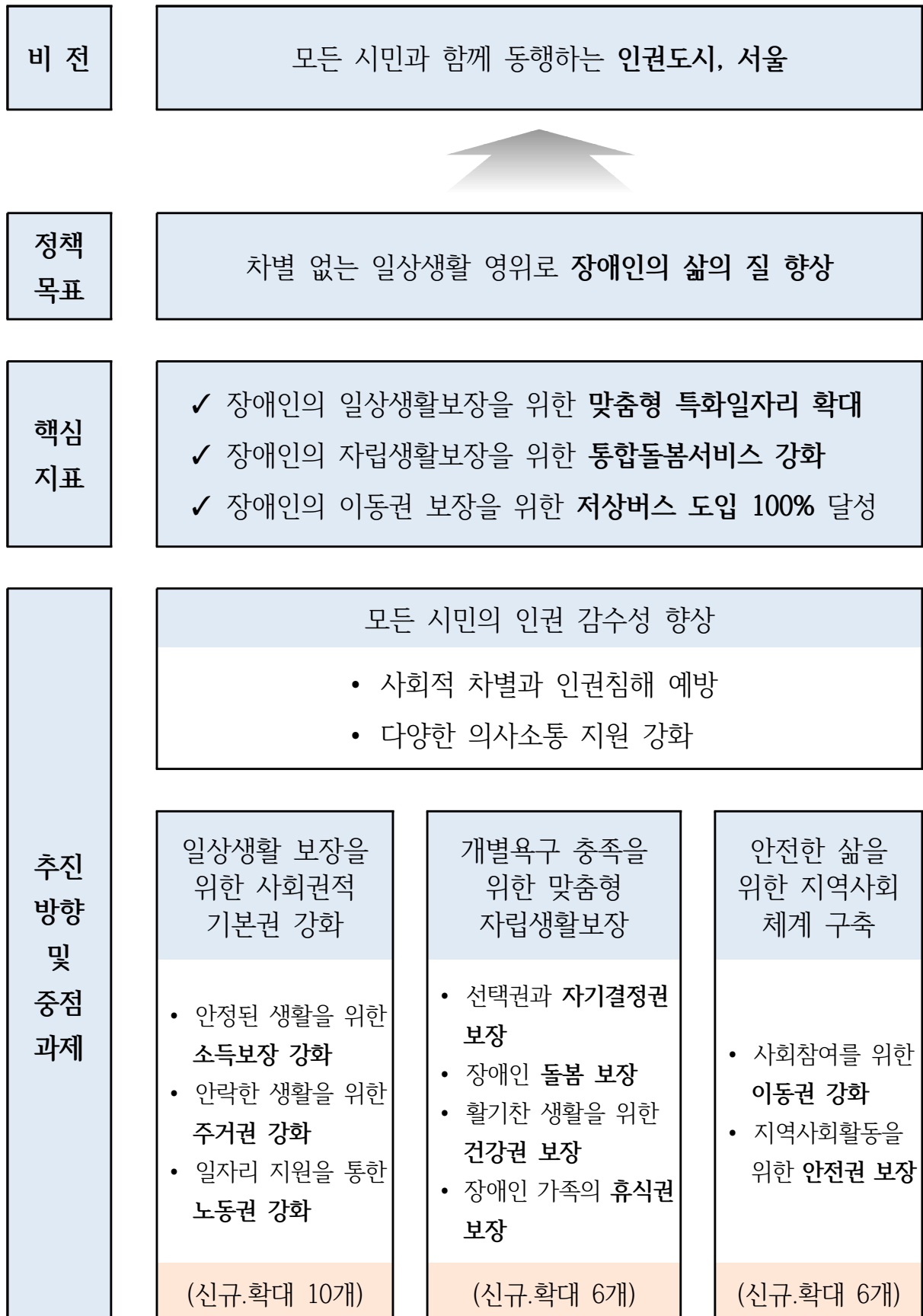
1) 추진 배경

- ‘시혜·동정’에서 ‘당사자주의·권리’관점의 ‘차별금지·인권증진’으로 변화에 따른 장애 유형별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필요
- 장애인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차별금지·권익향상을 위한 장애인 안심 대응체계 필요
- 모든 장애인이 서울시민으로서 사회적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단기 종합계획의 마련을 위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2) 추진 방향

-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장애인 인권강화
 - 장애인 인권역량 강화 : 사회참여, 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필요.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인식개선 홍보(방송매체, SNS 등 활용)
 - 이동권 및 건강권 보장 :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 확대, 지하철 단차해소 등을 통한 이동약자 지원. 장애인 건강보건 체계 구축 및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한 건강권 강화
 - 지역사회 안전한 환경 구축 : 거주 공간인 주택안전, 지역사회 편의시설 등 생활속 안전한 환경 구축. 긴급 재해·재난 상황 시 안전확보를 위한 장애특성별 교육 및 안전지침 마련
-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권 강화
 - 장애인 인권역량 강화를 위한 다층적 접근 필요(교육, 홍보 등)
 - 장애인당사자의 자기주도권 강화 위한 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추진
 - 일상생활 영위 위한 지역사회시설 이용권 강화(소규모상점 경사로)
 - 지역사회, (공동)주택 등에서의 안전한 일상생활 보장을 위한 지원 강화
 -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거권, 이동권 보장 사업

나. 비전 및 정책목표



다. 주요 추진내용

1) 발달장애인 재정관리 지원 서비스

- 20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및 안전한 재산 관리 신탁 서비스 제공
- 2024년 3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

2)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 청년 중증장애인이 3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
- 2024년 7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900명으로 확대할 계획

3)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 일자리

-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맞는 특화 일자리 2024년 250개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450개로 발굴·확대

4) 통합돌봄서비스 및 긴급돌봄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 2024년 6월부터 시행
-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등 긴급 상황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추진

5) 활동지원서비스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현재 2만 4,500명에서 2028년까지 2만 6,500명으로 늘릴 예정

6) AI 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

-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AI 활용 도전적 행동 분석시스템'을 현재 2곳에서 2028년까지 4곳으로 확대

7) 이동권 보장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콜택시를 2024년에 60대 추가하여, 2025년까지 총 870대 운행 예정
- 생활밀착형 상점 경사로 2024년 600곳 신규 설치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300곳으로 확대

8) 의사소통 지원 서비스

- 개인별 의사표현 방식을 분석하고, 당사자 및 주변인에게 효과적인 소통방식 제안
- 현재 50명을 대상으로 1인당 20회 지원하는 사업을 70명까지 늘릴 예정

가. 장애인 돌봄 영역 핵심과제

1) 복지 수요 분석

- 등록 장애인 가운데 60세 이상의 장애 노인의 비중이 가장 높음(64.0%)
- 고령화로 인해 장애 노인의 수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 고령화된 장애인보다 노화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적응의 어려움이 크므로 사례관리 시 장애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인데, 이동·외출 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의 수요 높음
- 지역에 상관없이 이동·외출에 가장 어려움을 느끼므로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 필요성 높음
- 장애인 돌봄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주거비와 돌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비스 수요 증대
-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접근성 높은 운동 공간 희망

2) 핵심과제 도출

- 배리어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디자인 및 기존 시설 개선
- 기존 시행 사업(예: 느린학습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 및 지원 서비스 확대
- 장애인 돌봄 가족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및 지원
- 장애인 주거지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인근 체육시설 이용권 지원

나. 정신건강 영역 핵심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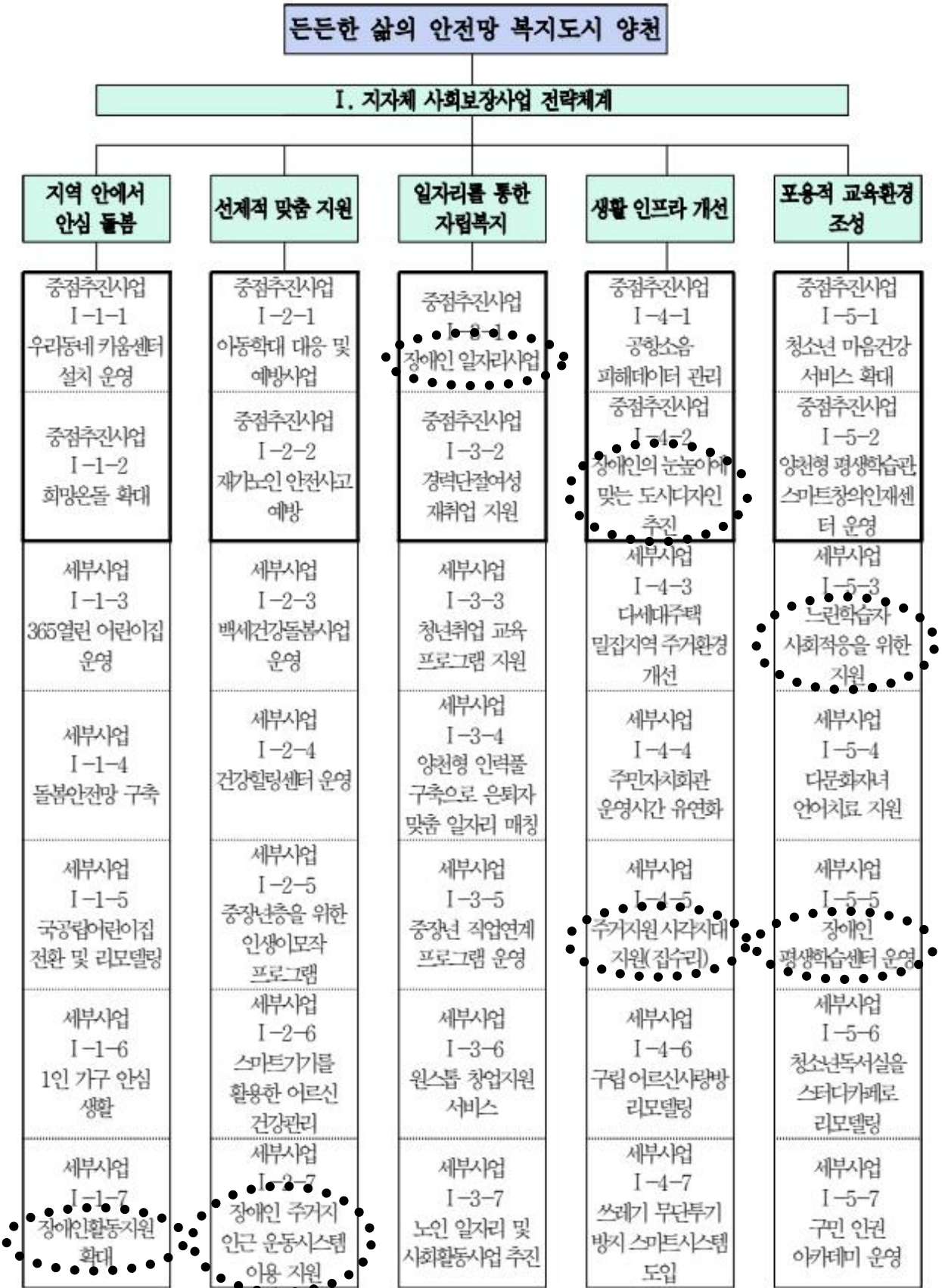
1) 복지 수요 분석

- 정신건강 영역 수요 파악을 위한 구 단위 정량적 데이터 부재
- 1인가구 증가하고 COVID-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 단절, 이동·사회 활동이 제약된 노인 인구 증가
-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증가 추세(특히 여성의 수 급증)
- 북한이탈주민·다문화주민의 폐쇄적 사회관계, 사회적 차별·배제는 정신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특히 아동·청소년이 취약)
- 열악한 주거환경과 소음의 지속적 노출, 녹지 및 유희 공간 부족 등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증가

2) 핵심과제 도출

- 정신장애 관련 교육·홍보, 조기 발견 및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정신질환자 퇴원 후 지역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중간집 운영 등 필요
- 사회적협동조합을 이용한 정신장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역량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 범주에 정신장애인 포함하는 방안 고려
- 정신건강 취약계층(장년이상 1인 가구, 자살 시도자, 위기 상황 직면자 등)에 대한 예방적 지원 체계 구축

다. 비전과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사업





II. 계획수립 배경 및 현황

- 1. 계획수립 배경**
- 2. 양천구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인 현황**
- 3. 복지관 이용 현황**
- 4. 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1 계획수립 배경

가.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 준비

- 복지수요 다변화, 고립, 고령화, 장애인권 강화, 디지털 전환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
-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이용자 욕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개선
- 기후위기, 감염병 등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
-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사회 변화 트렌드 반영한 전략적 사업 기획

나.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와의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 제시

- 장애인의 일상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통한 삶의 주체성 강화 필요
- 지역 주민, 기관, 단체와의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포용적 공동체 실현
- 참여와 공감대 확산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조성

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관 운영 방향성 수립

- 중장기적 비전과 운영 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 재정립
- 인력 배치의 효율성 제고와 조직 내 협업 강화로 운영의 내실화
- 사업 간 중복 최소화 및 연계 강화로 시너지 효과 창출
- 직원 역량 개발 및 전략적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복지관 운영 기반 마련

라. 2025년 2월 운영법인 재수탁에 따른 운영 정체성과 방향성 재정립

- 복지관 재수탁을 계기로 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성 재정립
-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로 이용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성 실현
-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기반 위에 복지관의 장기적 발전과 역할 정립

2 양천구 지역사회 특성 및 장애인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가. 양천구 지역사회 특성

1) 지리적·행정적 특성

- 서울 서남권에 위치, 강서구·구로구·영등포구와 인접
- 목동·신정·신월동의 총 18개 행정동이 있음
- 교육·주거 중심지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와 교육열이 높음
- 서울 지하철 2·5호선, 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요지

2) 인구 구조

- 2024년 기준 인구 약 43만 명 내외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 상승
- 신혼부부·청년층 유입은 둔화, 1인 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 증가
- 학령인구(초·중·고 학생) 점차 감소하여 학교시설 활용의 변화 가능성 있음

3) 사회·경제적 특성

- 중산층 주거지역으로 대표되며,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 영위
- 신월·신정 일부 지역은 저소득층 밀집하여 지역 내 소득 불균형 존재
- 자영업·소상공인 비중이 높으며, 경기 침체 시 취약성 높음

4) 복지·보건 환경

- 등록장애인 약 17천여명(서울 통계 기준), 점진적으로 증가 추세
-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수요와 장애·노인 복합 문제 확대
- 상대적으로 발달장애·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부족하다는 평가 있음
- 주민 욕구조사에서 돌봄, 의료, 여가·문화 프로그램 수요 높음

5) 지역사회 변화와 과제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장기적 돌봄체계 강화 필요
- 교육도시 이미지에서 복지도시로 전환 요구 증가
- 지역 내 불균형 해소(목동 vs 신월·신정) 과제 존재
- 사회적 연대·자원봉사 참여도는 높지만, 점차 개별화·단절 경향도 나타남
-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요구 증대

나. 양천구 장애인 현황

1) 장애정도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심한장애	심하지않은장애
합계	17,588	6,052	11,536
남	10,229	3,635	6,594
여	7,359	2,417	4,942

2) 장애유형별 성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합계	17,588	7,059	1,701	3,556	17	1,224	1,615	386	628	790	52	89	139	16	140	46
남	10,229	4,086	1,009	1,924	109	747	941	327	308	474	42	61	87	8	79	27
여	7,359	2,973	692	1,632	38	477	674	59	320	316	10	28	52	8	61	19

3) 장애유형별 연령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 병변	자 폐성	정 신	신 장	심 장	호 흡기	간	안 면	장 루요 루	뇌 전증
합계	17,588	7,059	1,701	3,556	17	1,224	1,615	386	628	790	52	89	139	16	140	46
9세 이하	226	8	1	12	13	61	30	99	0	0	0	0	1	0	0	1
10~ 19세	475	28	13	26	4	207	44	143	1	0	2	1	2	1	1	2
20~ 29세	619	70	33	29	5	307	52	82	20	9	8	0	1	0	0	3
30~ 39세	723	147	67	44	6	249	41	53	78	19	6	1	2	3	2	5
40~ 49세	1,305	475	188	59	16	166	119	9	147	86	7	3	13	4	7	6
50~ 59세	2,358	1,062	285	203	17	143	193	0	194	195	7	8	21	2	12	16
60~ 69세	4,030	2,053	395	561	37	70	406	0	142	223	10	21	59	4	39	10
70~ 79세	4,431	1,987	426	1,156	30	19	444	0	39	182	9	42	38	1	56	2
80세 이상	3,421	1,229	293	1,466	19	2	286	0	7	76	3	13	2	1	23	1

4)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권 교육센터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기타 복지센터
합계	34	11	4	7	1	1	4	5

5) 양천구 장애인 현황과 과제

- 고령 장애인 증가 : 고령 인구가 늘면서 장애 등록자 중 노령 장애인 비중이 증가. 이는 연령 관련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등)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

- 경증 장애인 비율 증가 : 중증 장애보다는 경증 장애인의 비율이 전체 장애인 등록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경증 장애인의 요구(일상생활 지원, 보조기구, 접근성 등)가 더 다양해지고 있음
- 돌봄 및 서비스 수요 증가 : 고령 장애인이 늘고, 가족 돌봄 여건이 약해지는 가구 형태 변화(1인 가구, 부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공적 돌봄 서비스, 활동지원, 보조기구, 접근성 보장 등이 중요해짐
- 차별 인식 및 권리 요구 증가 : 전반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인식이 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나 지역사회에서 권리 보장, 인식 개선 요구가 커지는 추세임
- 생활 만족도 및 사회적 참여 요구 증가 : 외출 빈도, 여가 활동, 사회적 접촉 등이 코로나19 이후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여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격차 존재함. 장애인의 사회 참여 수준, 접근성 개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임

3 복지관 이용 현황 (2024년 12월 기준)

가. 연도별 실인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실인원	1,371명	3,182명	3,835명	3,189명	4,025명

나. 연도별 1일 평균 이용 인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411명	337명	389명	418	521명
장애인	279명	253명	342명	401명	462명
비장애인 (보호자 및 활동지원사)	132명	84명	47명	17명	59명

다. 장애유형별·연령별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안면	미등록	비장애
합계	4,025	915	564	1,176	332	53	85	97	179	31	4	6	2	2	33	0	305	241
0~3세	26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5	0
4~6세	269	42	4	13	61	11	0	0	0	0	0	0	0	0	0	0	136	2
7~12세	372	66	1	89	104	19	0	1	0	0	0	0	0	0	0	0	90	2
13~18세	277	52	6	114	62	3	0	0	0	0	0	0	0	0	0	0	35	5
19~30세	609	41	12	429	72	2	2	5	23	0	0	0	0	0	4	0	1	18
31~40세	368	38	31	212	29	0	8	2	35	0	0	0	0	0	6	0	2	5

구분	합계	뇌병변	지체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정신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요루	간질	안면	미등록	비장애
41~50세	413	135	44	144	2	0	2	3	37	1	0	0	0	0	11	0	7	27
51~65세	865	240	202	141	1	8	19	21	73	24	0	6	2	0	9	0	5	114
66세 이상	826	300	264	34	1	10	54	65	11	6	4	0	0	2	3	0	4	68

라. 성별 이용 현황

구분	남	여
합계	2,341명	1,684명
비율	58%	42%

마. 거주지역별 이용 현황

구분	양천구	기타
합계	3,210명	815명
비율	80%	20%

4 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가. 복지관 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조사 개요

- 조사 목적 : 복지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욕구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 조사 대상 : 753명(양천구 지역장애인, 복지관 관내 이용자, 자원봉사자)

구 분		참여인원
합계		753명
이용자	각 프로그램	555명
	식당	127명
자원봉사자		71명

- 조사 기간 : 2024년 7월 29일 ~ 8월 30일
- 조사 방법 : 설문조사(서면, 온라인)

나. 전반적 욕구 및 만족도

- 복지관 시설 및 환경
 - 대부분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지만 ‘매우 불만족’이라는 의견이 나온 항목이 있음. 특히 ‘복지관 내부 이용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다.’라는 의견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9.7%)이 나타난 만큼 휴식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복지관 이용 및 인식
 - 복지관에 대한 이용 및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답변이 나타났으나 부정적인 의견도 모든 항목에 나타났음. 그 중 ‘복지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96.7%), ‘복지관 직원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96.4%) 라는 의견이 가장 높은 만큼 복지관의 전문성과 서비스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인 의견 또한 나타난 바, 향후에는 직원 역량 강화와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를 통해 만족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여짐

○ 사회적 관계와 참여

- 사회적 관계와 참여에 대한 조사 결과 ‘복지관 내 사람들과 소통하며 친하게 지낸다.’(74.1%)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응답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관계 형성과 지역사회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나타남. 이용자 간 교류 및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

-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보호자 상담 및 양육지원)’이 18.4%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으며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17.7%), 상담 및 복지정보 제공(17.7%)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 프로그램(7.1%)의 순으로 나타남

다. 서비스별 욕구 및 만족도

○ 권익옹호사업

- 대부분 긍정적 답변이 나타났으나, ‘담당자는 나의 어려움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부정적인 응답이 제시되었음. 기타의견으로는 나들이, 여가프로그램, 상담, 경계성 청소년 프로그램 확대 등의 의견이 나타남

○ 통합발달사업

- 특수교육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나, 활동 진행 횟수가 적절하도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기타의견으로 통합교육, 자기표현력향상, 자기주장훈련등의 의견이 제시됨
- 심리운동 :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업, 다양한동작과 놀이의 수업 진행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음악심리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모집성프로그램의 추가, 상호작용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놀이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수업시간이 너무 짧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미술심리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장소 및 공간은 청결하다’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됨. 기타의견으로 활동실 외에서의 다양한 외부활동, 개별프로그램 증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자립지원사업

- 고용지원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에서는 상담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다양한 범위의 활동, 적응 지도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직업준비반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담당자의 적극적인 태도 부분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남
- 자립준비반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용자는 향후 주거독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부분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음. 기타의견으로는 적응기간이 짧다, 요리실습 등의 의견이 제시됨
- 공동생활가정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욕실이나 거실 등 거주환경은 만족스럽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나왔음. 기타의견으로는 1박 이상의 여행 욕구, 인권교육, 안전교육 등의 욕구가 제시됨

○ 평생교육사업

- 평생교육 :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장소 및 공간’과 ‘프로그램 진행과정 내 상담 및 정보제공’을 제외한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횡수 증가, 요리교실, 이용료감면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청소년 통합지원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진행 횡수가 적절하다’와 ‘담당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에 대한 문항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음악프로그램, 신규프로그램 증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주민참여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나, 프로그램 진행방법, 도구 및 장비, 전반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음. 탁구동아리에 대한 기타의견은 프로그램증가, 여행동아리에 대한

욕구가 제시됨

- 문화여가 :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프로그램 도구 및 장비 부분에서 부정적인 응답율이 높았음. 기타의견으로는 횡수증가, 스포츠활동에 대한 의견 나타남
- 해누리미디어 :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이 함께 제시됨. 특히 ‘담당자는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에 부정적인 답변이 제시됨. 기타의견으로는 횡수증가에 대한 의견 제시됨
- 낮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알림장 활용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기능향상사업

- 물리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치료 이용기간의 연장, 대기기간의 감소 등이 제시됨
- 작업활동 : 모든응답에서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음. 기타의견에서도 담당자의 친절한 응대와 원활한 지원에 대한 내용이 확인됨
- 수중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치료 이용기간의 연장, 대기기간의 감소, 물의 온도, 실내 온도 관련 내용 등이 제시됨
- 언어활동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치료이용기간 연장, 대기기간의 감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재활운동, 운동지도 : 긍정적인 만족도 결과가 나타났으며 치료이용기간 연장, 대기기간의 감소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맛있는집(식당)

- 긍정적인 답변이 높았으나 식당환경, 메뉴구성 등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음. 식당에 대한 기타의견으로는 원하는 메뉴구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 자원봉사 활동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 :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 욕구는 ‘있

- 다' 가 8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복지관 지원 프로그램 중 가장 만족한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우리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다수의 응답자가 복지관의 각종프로그램 보조로 응답하였음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 :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와 만족도를 파악하는 질문을 조사한 결과 '삶의 보람 제공' 이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음

라.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대한 제안 및 조언

-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직원들의 친절한 응대에 감사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치료비용의 합리성, 대인관계 성장, 교육과 소통등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시설환경개선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됨



Ⅲ. 계획수립 방향 및 목표

1. 시설 운영계획
2. 중점 추진방향
3. 중단기 발전계획
4. 조직변화

1 시설 운영계획

가. 운영 방향

-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양천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서 앞으로 5년을 준비함에 있어 시시각각 변화하는 장애인정책(탈시설화, 개인예산제, 활동보조지원 강화 등) 및 양천구 목동·신정동지역 재개발로 인한 지역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자 함.
- 특히, 이러한 역할변화에 있어 제공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눈높이에 걸맞는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 양천구의 1만7천여 장애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복지관으로서 거듭남과 동시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에 확장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복지를 선두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지역사회 공신력 제고

- 사회복지기관의 공신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자체평가, 외부 평가(서울시 장애인복지관 평가), 회계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지속적으로 기관의 공신력 향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임.
- 양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양천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 직능단체 등 외부자원 연계사업을 통하여 양천구의 유일한 장애인복지관으로 인지도가 높게 형성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 체계와 신뢰성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예산 수립과 결산 및 후원금 사용 내역을 홈페이지와 복지관 소식지 등에 게시함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 재정공시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주민과 장애인들이 언제든지 복지관 재정상태를 확인함으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인지도를 향상하고 책무성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복지관 직원에 대한 인권보호와 더불어 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의 인권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공식적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이 어떠한 차별이나 비밀보장,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불편함이 없는 윤리적인 기관으로서 공신력을 높일 계획임.

다. 조직 운영

- 장애인복지 특히 사회복지에는 그 어떤 영역의 전문성보다도 가치를 기반해 윤리성을 기반으로 사을 수행해야 하는 특징이 있음. 이는 인권 감수성 안에서 사업이 수행되어야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음.
- 이는 사회복지조직이야말로 무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으로서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존재이유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수적임.
- 이에 지역사회 환경 및 정책변화에 기반하여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자 비전회의, 차담회의, 각종 TF, 행복한복지관만들기 위원회 등을 통하여 기관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라. 핵심 운영가치

- 언제나 반갑게
 - 고객은 가족입니다.
 - 언제나 밝고 친절하게 맞이합니다.
- 항상 칭찬하며
 - 서로에게 칭찬과 감사를 통해 신뢰하는 문화를 만듭니다.
 -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열정과 창의가 살아나는 문화를 만듭니다.
- 매사 헌신하자
 - 이타적 마음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듭니다.
 - 소명의식을 갖고 장애인의 자립과 가치있는 활동을 돕습니다.

2 중점 추진방향

가. 장애인의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가구 현황조사 및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 장애인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 장소 공간의 유연화
-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사례지원 강화

나. 별일있는 일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수요자 욕구 기반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권리기반 강화 등 일상적인 건강한 삶 지원

다. 각별한 사이를 만드는 지역통합환경 조성

- 열린복지관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주민 참여 확대
-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망 확대
- 장애인의 보통의 삶 및 지역주민과 관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라. 별일있는 일상을 지원하는 유별난 일꾼 육성

- 인재양성 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 꾸준한 사례연구 및 우수프로그램 개발
- 복지관 지속가능발전 위한 인사, 예산, 사업관리 등 ESG 시스템 구축

마. 신월 거점 센터 복지서비스 확대

-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주민 친화형 복지사업 수행
- 신월동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마련 및 활성화
- 신월동 지역 장애인 대상 방문형 복지 체계 구축

3 중단기 발전계획

가. 미션(Mission)

-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 비전(Vision)

-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각별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변화를 주도하는 유별난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

구 분	내 용
운영목표 1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1-1.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1-2.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목표 2	누구에게나 '별일 있는 일상' 만들기
추진전략	2-1. 최중증 및 중·고령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2-2. 필요한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2-3. 보통의 삶을 위한 일상 속 권리강화
운영목표 3	각별한 사이를 만드는 지역통합환경 조성
추진전략	3-1. 열린복지관 운영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 3-2.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 및 기관 연계망 확대 3-3. 지역주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운영목표 4	신월지역의 장애인복지 중심이 되는 센터 운영
추진전략	4-1.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 친화형 복지사업 수행 4-2. 누구나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4-3. 신월 지역 맞춤형 방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목표 5	별일 있는 일상 지원하는 유별난 일꾼 육성
추진전략	5-1. 전문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인재개발 시스템 강화 5-2.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확립 5-3. 지속발전을 위한 인사, 예산, 사업관리 등 ESG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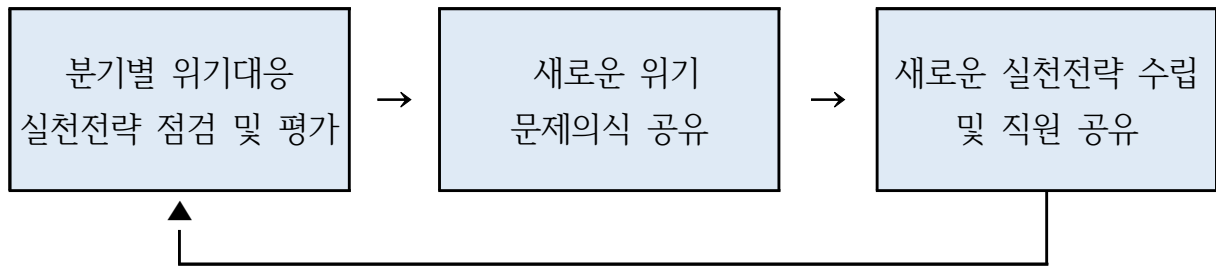
라. 우리의 다짐

○ 별일 있는 오늘로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마. 연차별 추진계획



바.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



- ‘환경변화 등 미래서비스 대비를 위한 위기대응 실천전략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기반 분기별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실시
- 분기별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통해 새로운 위기(정책 개편, 사회적 위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 새로운 위기의 기존 전략 대응 가능 여부 점검 및 새로운 실천전략 수립 후 직원 공유

가.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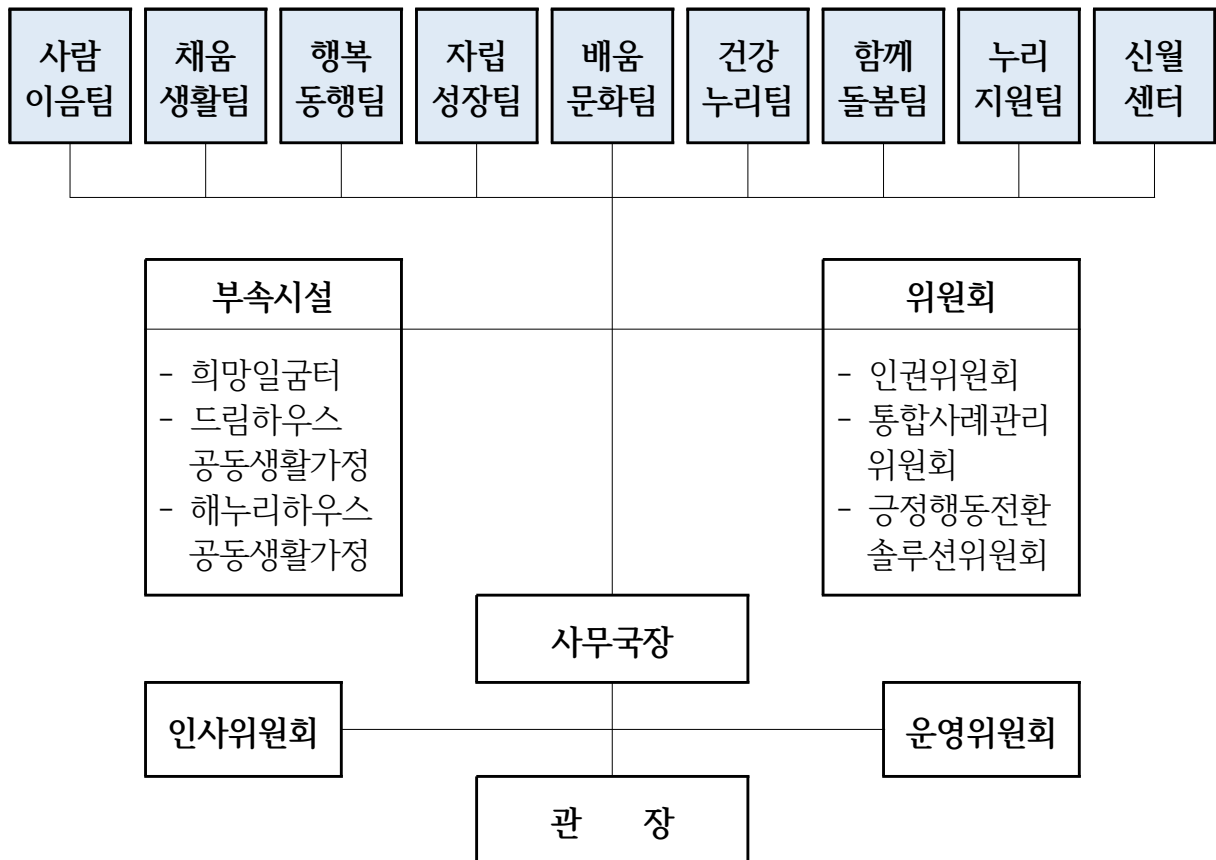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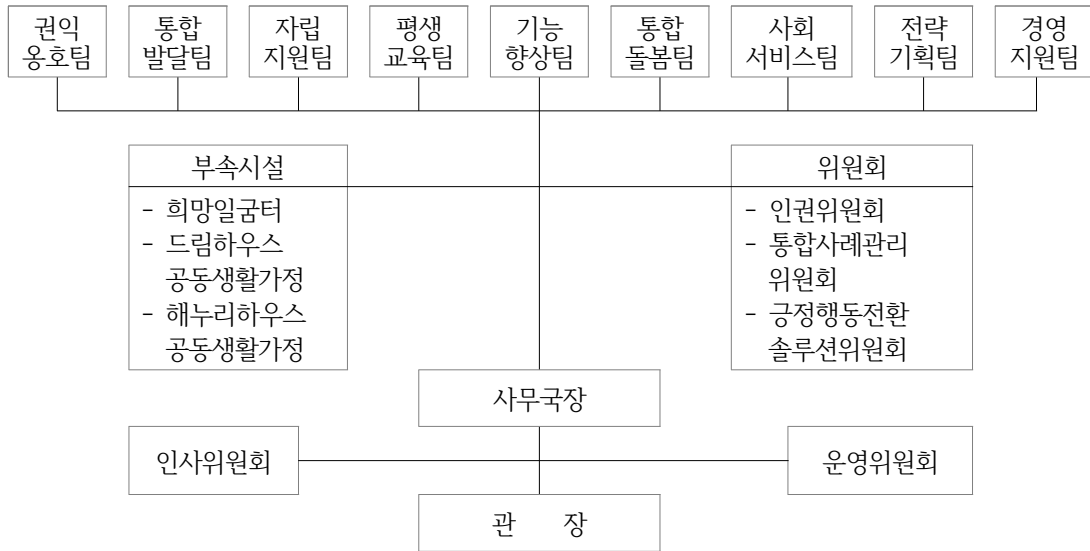
- 복지관 비전과 운영목표에 부합하는 조직 체계 재정립
- 지역친화형 복지 강화와 조직 내 협업과 유연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의 팀별 역할 재정립 및 기능 조정
- 유사한 역할의 사업을 통합하여 시너지 극대화 및 조직 효율성 제고

나. 주요 변화 사항

- 조직 안정성을 위해 현행 1국 9팀 체계 유지
- 지역친화형 복지 강화를 위해 채움생활, 행복동행 2개팀 신설
- 통합적인 교육·문화 기능 강화를 위해 평생교육과 통합발달을 배움문화로 통합
- 이용자 중심의 신체·정서 발달 및 재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기능향상과 통합발달을 건강누리로 통합
- 효율적인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지원과 전략기획을 누리지원으로 통합
- 유연하고 확장성 있는 팀명 명칭

다.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 조직구성(1국9팀)



○ 팀별 주요사업

팀명	사람이음	채움생활	행복동행	자립성장	배움문화	건강누리	함께돌봄	누리지원	신일센터
역할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	주거환경, 일상생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자립과 경제활동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건강, 재활	통합돌봄	기획, 총무	신일복지
주요사업	사례발굴	일상생활 지원	마을 만들기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평생교육	심리운동	통합돌봄	기획운영 (계획 및 평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활동	생활환경 개선	편의시설 지원	직업적응 훈련	주민참여	놀이활동	솔루션 위원회	기획운영 (위원회)	활동 지원사 관리
	권익옹호	중장년 발달 장애인 지원	홍보	전환교육	문화여가 지원	심리음악		직원역량 강화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정건강 지원(물리)	자원봉사	자립생활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물리활동		조직문화	운영관리
	접수상담 -일반	뇌병변 영유아 조기개입	후원, 골프대회	재가 장애인 자립지원	해누리 미디어	작업활동		고객만족	주민 조직화
	통합사례 회의	한가위 행사	장애인식 개선	고용	심리미술	수중활동		인적 자원관리	
	지원계획 회의		네트워크	전문직종 훈련	특수교육	언어활동		대관	
			대보름 행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돌봄가족 휴가제	재활운동		안전관리, 시설환경 관리	
				그린코디 네이터	해누리 보치아 대회	아동발달 지원		차량관리, 지원	
				접수상담 -자립	노인복지 증진	접수상담 -재활		식당운영	
				취업 박람회	누리네 체육교실	기능향상 컨설팅		인사	
				정원	느린 학습자	양천 지식인		회계	
				그룹홈 운영관리	송년 가족잔치			수납, 서무	
				전문 탁구모임					



VI. 분야별 5개년 추진계획

1. 사람이음사업
2. 채움생활사업
3. 행복동행사업
4. 자립성장사업
5. 배움문화사업
6. 건강누리사업
7. 함께돌봄사업
8. 누리지원사업
9. 신월센터

1 사람이음사업

가. 비전

- 장애인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지역에서 즐겁고 안전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나. 사업목표

- 장애인의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이 지역에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강화
- 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자기 옹호 역량 강화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고립 위험 장애인 조기 발굴을 위한 선제적 접근 강화
-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 공식, 비공식 관계망을 활용한 마을 공동체 실현
- 장애인 인권 감수성 및 지역사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라. 주요사업

- 접수상담
- 사례발굴
- 사례활동
- 권익옹호
- 실습지도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접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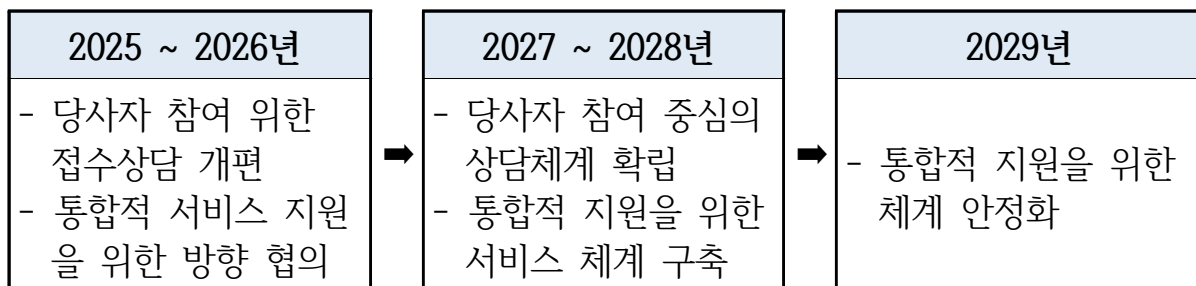
가) 현황

-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계획회의를 통해 서비스 지원의 방향을 수립하고 있음
-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복지관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문의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2022년-133건, 2023년-124건, 2024년-92건) 복지 정보제공 및 일반상담의 건수는 증가추세에 있음(2022년-65건, 2023년-64건, 2024년-181건)
- 또한 일반상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서비스 정보 안내를 넘어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 성인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 대처 / 자립지원 등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하여 단순 안내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상담으로 연계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음

나) 추진방향

-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 배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보건복지부)은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복지관에서는 복지 정보 안내 및 단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장애인의 삶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다) 연차별 추진계획



씨앗기

성장기

결실기

2) 사례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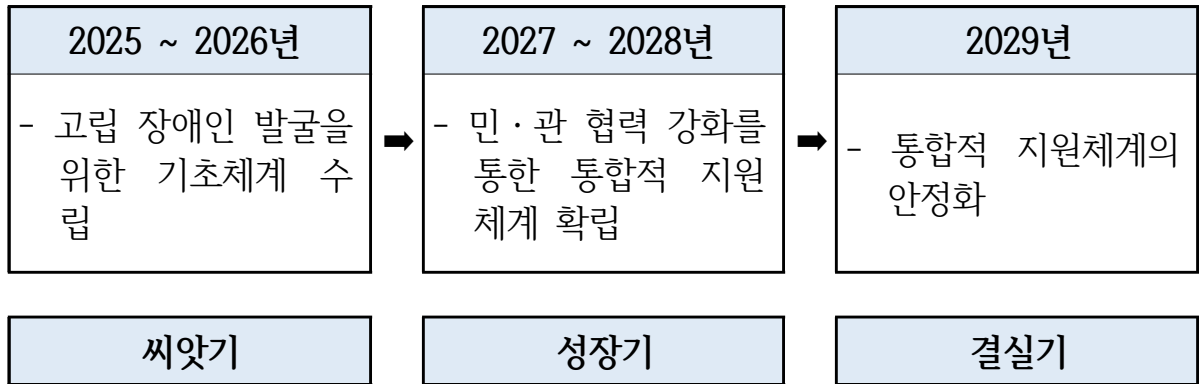
가) 현황

- 2025년 고립 위험 장애인 조기 발굴을 위한 적극적 사업 진행함.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통장 및 지역사회 활동 경험이 많은 주민을 중심으로 고립 및 위험 상황에 놓인 장애인을 찾기 위해 지역 상가 등을 중심으로 3회 홍보하였으며, 현재 총 4건의 사례발굴 진행됨
- 발굴된 사례 상담 결과 대부분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며, 공적, 비공식적 자원의 이해 및 활용도가 매우 낮았음

나) 추진방향

- 지역사회 기반 사례 발굴 체계 마련(이웃, 상점 등 연계)
 - ▷ 배경 : 1인 가구 및 장애인은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하여 위기 상황 시 도움받을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공적 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립 장애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역 밀착 거점을 활용한 발굴 시스템 마련이 필요
- 마을 단위 발굴 캠페인 및 참여형 활동 확대
 - ▷ 배경 : 고립 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활동이 단절되어 발굴 자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보다 지역중심적이며, 동네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상인·단체 등 마을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으로 장애인이 직접 생활하고 있는 마을 단위의 촘촘한 발굴망 구축이 필요
- 민·관 협력 기반의 통합적 지원 네트워크 구축
 - ▷ 배경 : 취약 가구에 대한 지원이 분야별로 파편화되어 통합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임. 대상자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의 기관이 협력하여 통합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체계화할 필요 있음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사례활동

가) 현황

- 복합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과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대상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례활동 진행하고 있음
- 사례관리를 진행하는 공공, 민간 기관이 많아지면서 경증장애인에 대한 사례 개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사례대상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에 해당함. 지난 3년간 개입한 사례 대상자의 90% 이상이 (2022년-18명, 2023년-15명, 2024년-26명) 인지적 어려움을 동반하는 고령의 중증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가족구성원이 모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례로 단순한 서비스 연계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돌봄을 필요로 함(사례대상자 중 70%이상이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에 해당함.)
- 또한 지역사회 내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음

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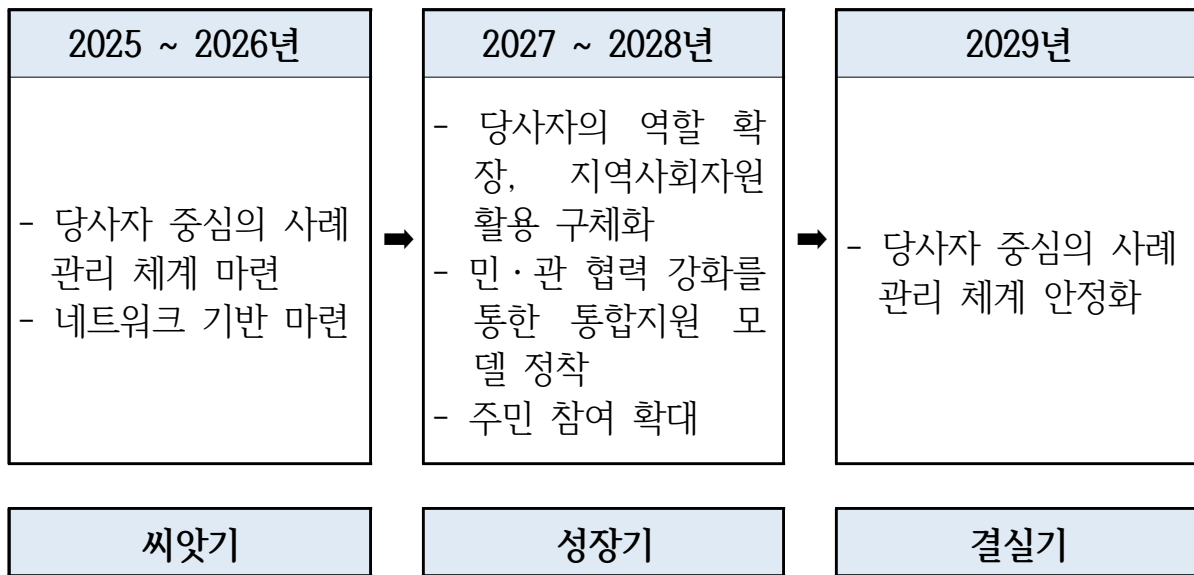
- 지역 자원을 활용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 ▷ 배경 : 공공 사례관리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복지관의 사례활동 대상으로는 고립 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지속적이고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단순한 자원 연계를 넘어서, 관계 형성, 사회적 참여, 정서적

안녕, 당사자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개입 방식이 필요함. 이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는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될 것임

○ 사례관리자의 전문성 향상

- ▷ 배경 :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한 사례활동은 단순한 자원 연계 중심에서 확장되어, 사람중심 실천과 강점관점 중심으로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보통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 개입 능력이 요구됨. 이에 따라 사례관리자의 지속적인 학습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실천이 필요함.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권익옹호

가) 현황

- (법적, 성적, 경제적 등) 인권침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계 기관을 찾고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독립적 권익옹호활동 진행하고 있음(2022년-6명, 2023년-3명, 2024년-4명)
- 발달장애인의 일상적 옹호를 위한 시민옹호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발달장애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지역사회 활동 경험을 확장하고 시민옹호인과의 관계를 통해 일상적 권익을 향상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

- 2023년부터 옹해야(옹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사업을 진행, 인권 피해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이 모여 인권을 배우고,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기 옹호를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주체적 활동 진행하고 있음(2023년 유튜브 영상 제작 3편, 2024년 인권그림책 ‘선을 넘지마세요’ 제작, 2025년 인권 매뉴얼 제작)

나) 추진방향

- 예방 중심의 장애인의 권익옹호 사업 확대
 - ▷ 배경 : 장애인들이 겪는 권리 침해의 문제는 단편적인 상황으로 그치지 않고, 교육, 고용, 건강, 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삶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일상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특히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권 행사 및 인지적 어려움으로 인해 권익침해에 더 취약한 장애인으로 권리 침해 이후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후 활동을 넘어 자기 효능감을 높이고, 옹호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활동이 확대될 필요 있음
- 자기 결정권 강화를 위한 **참여자 중심의 프로그램 지원**
 - ▷ 배경 : 202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스스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예산을 개별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크게 지니고 있음.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과거 보호자나 기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권리침해 상황에서 침묵이나 수동적 수용 대신 거부·변경 등 적극적인 자기옹호를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주요한 이슈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돕는 참여자 중심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다) 연차별 추진계획



5) 실습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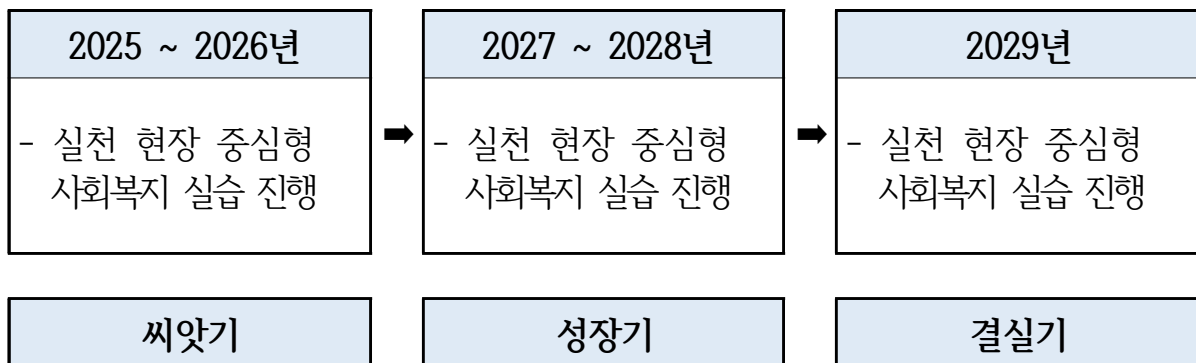
가) 현황

- 매년 2회(동계, 하계) 5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습 진행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다수팀을 순환 실습하여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하고 있음
- 실습생 및 사회복지 실습 담당 교수와의 미팅 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습 과정, 지도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4.8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나) 추진방향

- 실습 지도의 체계화(현장 적용형)
 - ▷ 배경 : 실습은 장애인복지관의 이해를 높이고, 실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장으로 예비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의 주요한 가치 및 이론이 정립되고,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실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실습이 마련될 필요 있음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양천구 장애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찾아 건강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나. 사업목표

- 개별 요구 기반의 물품지원체계 구축
-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활동
- 주민과의 정기적 만남을 통한 신뢰관계 강화
- 고립에서 벗어나 지역 내 자원과 연계하고 복지관 참여기회를 제공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이용자의 수요를 데이터화하여 필요한 품목을 분석·지원 및 지속적 관리
- 가정방문을 통한 생활환경 진단과 개선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사회 모범 사례로 확산
- 주1회 이상의 직접만남을 실시하여 생활변화와 욕구를 즉시 파악하고 지속 가능한 신뢰 관계를 형성
- 가정방문과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고립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복지관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을 완화

라. 주요사업

- 일생생활지원
- 건강지원상담
- 생활환경개선 및 컨설팅
-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일상생활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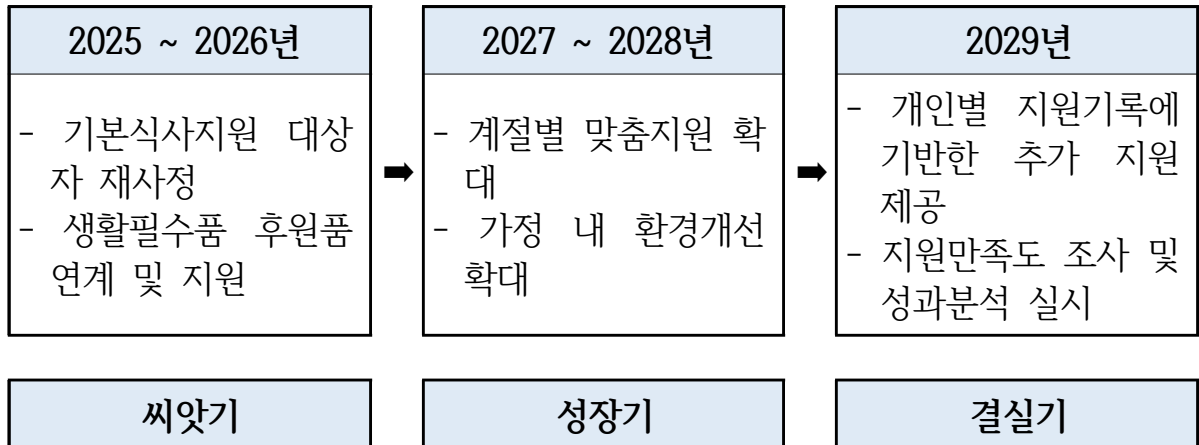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양천구의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7,588명이며 양천해누리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4,868명으로 양천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 약28%정도가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음
- 복지관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 단순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약 300가정으로 판정됨
- 2024년에는 경제적 어려움 및 조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식사유지가 어려운 재가장애인의 기본욕구 충족을 위해 밑반찬 지원 240명, 푸드박스지원 240명, 김치지원 4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2024년에 주거환경 노후화 및 위생과 안전에 취약하거나 생활비 부담 증가 등 가정 내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후원품연계 360명, LED등 교체 19명, 나눔쿠폰 120명, 뇌병변일회용품지원 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매년 혹서기 및 혹한기에 따른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 명절 시기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여 정서적 교류와 관계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나) 추진방향

- 당사자의 상황에 맞춘 물품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촉진
 - ▷ 배경 : 2024 장애인통계에 따르면 약 38%의 장애인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 문제로 인해 균형잡힌 식사가 어려우며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장애인의 약 42%가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계절과 시기에 맞춘 물품지원을 통한 쾌적한 삶을 지원
 - ▷ 배경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복지실태조사에서 난방취약 가구 중 30%가 장애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중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은 52%로 과반수 이상의 장애인이 일반적인 생활에서 지원 희망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건강지원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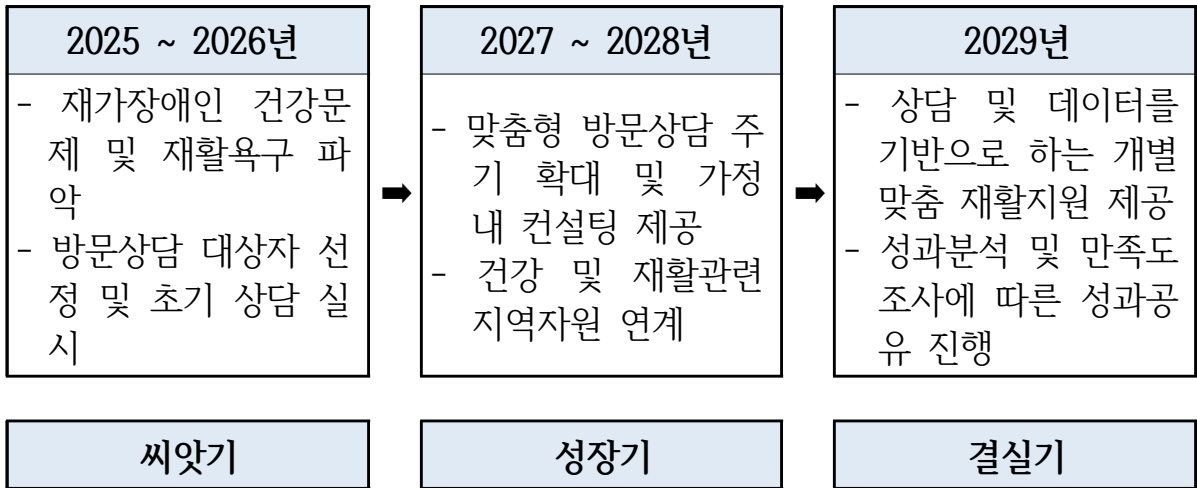
가) 현황

- 양천지식인을 통해 매해 10편 이상의 가정 내 재활방법을 영상제작 및 제공하고 있으며 총 30,000회 이상의 조회수 기록
- 2024년부터 가정으로 방문하여 재활상담을 제공하는 기능향상컨설팅을 통해 10명의 이용자에게 가정 내 적절한 재활방향을 안내

나) 추진방향

- 재가장애인의 건강문제 및 재활욕구파악을 통한 맞춤형 상담 제공
 - ▷ 배경 : 장애인의 연간 의료기관 입, 내원 일수는 평균 55.7일로 비장애인의 19.9일 보다 2.8배 높음 또한 장애인의 사망률은 전체국민대비 5.3배 높아 건강관리체계의 개선이 필요
- 지속적인 방문상담을 통한 재활의지 고취 및 삶의 질 향상
 - ▷ 배경 :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22년 39.8%에서 2023년에는 35.2%로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약 1/3의 장애인은 외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방문 중심의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생활환경개선 및 컨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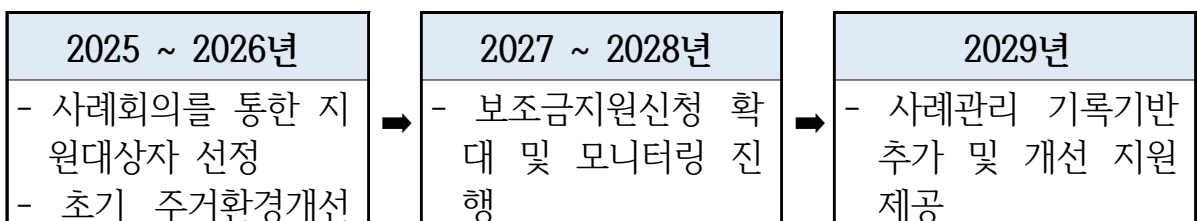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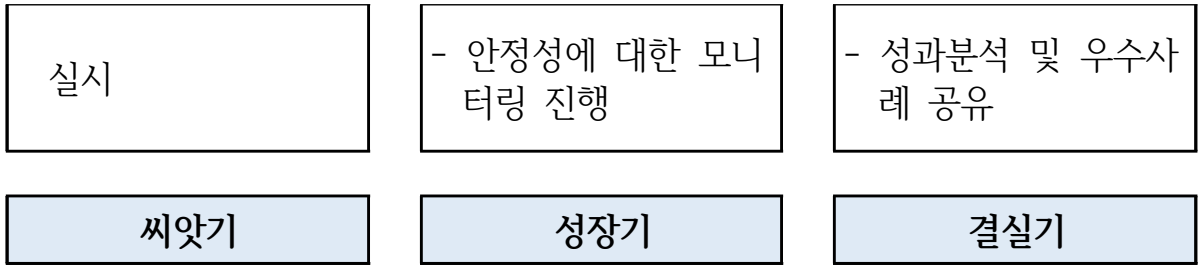
- 가정방문을 통해 적합성을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9명을 대상으로 53회의 생활환경개선을 진행
- 1월 중 양천구청 장애인보조금지원사업으로 신청 후 최종보조금 선정 이후 홍보를 통한 접수 진행

나) 추진방향

- 전문적 안전관리 기반 주거환경개선 추진
 - ▷ 배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복지 통계연보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의 35%는 주거지 내 낙상의 경험이 있으며 일상생활수행능력저하로 주거환경에서의 안전에 취약함이 보여 개별 맞춤형 안전시설 구축이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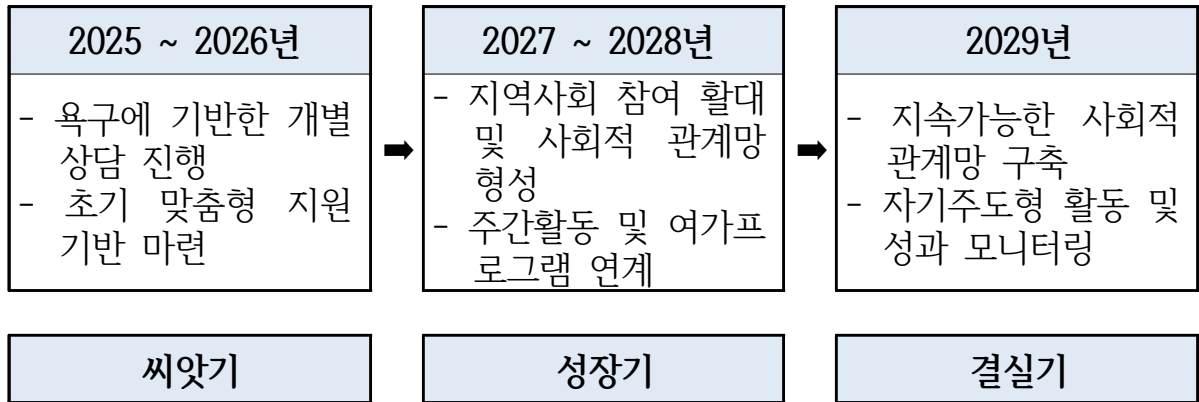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한국장애인개발원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지원사업을 통해 양천구청과 컨소시엄의 형태로 중장년발달장애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2024년 1년동안 실인원 30명 연인원 78명의 장애인을 발굴 및 지원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5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개별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계획 및 제공
- 가정 내 방치되고 있던 장애인의 외부활동을 지원하며 대기없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발 더 빠른 개입으로 장애인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역할 수행

나) 추진방향

- 맞춤형 초기지원 제공
 - ▷ 배경 : 양천구 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관은 총 67곳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대부분이 획일적, 일률적인 제공으로 중장년발달장애인의 개별욕구와 특성에 대한 반영이 부족함
- 지역사회 참여 촉진 및 지속가능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 ▷ 배경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2023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34.5%가 주간활동 및 여가활동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 내 고립위험이 높음. 또한 서울시에서는 2024년 10월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고립 및 은둔 대응정책을 본격 추진함에 맞추어 고립예방에서 정서지원과 지역사회연결의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다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지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 사업목표

- 장애인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 조성
- 통합환경을 위한 지역문화 조성
-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및 효율적 지원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지역주민 조직화 및 편의시설 지원을 통한 살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역연계망 강화를 통한 지원 확대
- 장애·비장애 거리감 해소를 위한 지역참여행사 및 인식개선사업 활성화
- 지역복지사업 효과성 확대를 위한 인적·물적 관리 및 홍보 강화

라. 주요사업

- 지역공동체지원
- 지역네트워크
- 장애인식개선
- 지역복지사업지원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지역공동체지원

가) 현황

- 2004년부터 장애인과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마을잔치, 만남데이, 이웃만들기, 공동체모임, 주민참여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
- 2004년부터 양천구 장애인보조금 지원사업 10cm 턱나눔으로 세상과 소통하기(유니버설 디자인 사업)를 통하여 지역사회를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2023년 부터는 지역 내 물리적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다중시설 모니터링 및 환경조성을 진행함. 2024년 부터는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원

나) 추진방향

- 장애인이 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지역주민 조직화
 - ▷ 배경 : 지역주민조직화는 주민의 역량 강화, 복지 서비스 접근성 향상,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내 자원 개발 및 활용, 복지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 의식 함양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장애인 겪는 불편과 갈등 등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일상에서의 차별없는 지역문화를 조성할 수 있음
- 다양한 지역참여사업 활성화
 - ▷ 배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같은 주민, 같은 시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장애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 해소
- 장애인편의지원 확충
 - ▷ 배경 :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라는 비전을 강조하며 도시·주거목표에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도시 환경을 목표로 설정함. 서울시 내 많은 지역구들이 “장애친화도시” 정책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양천구 내에서도 장애친화도시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제한이 되는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통의 삶’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지역네트워크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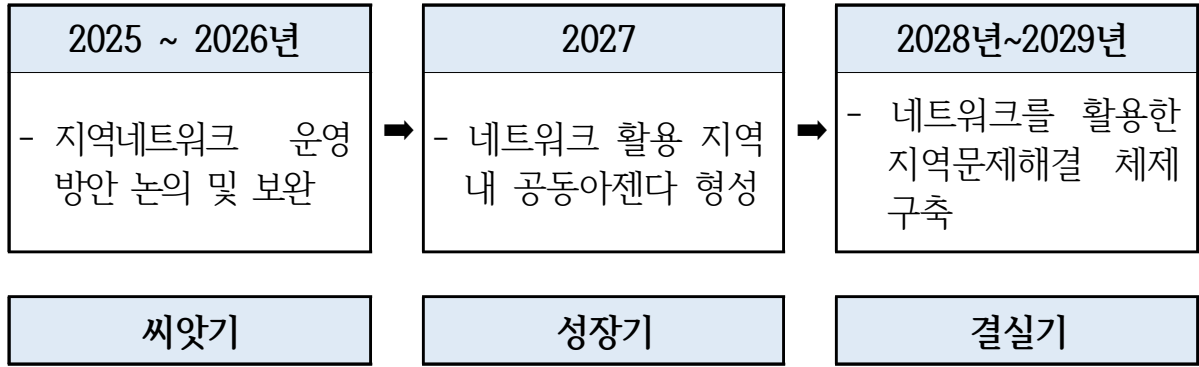
- 지역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주민단체, 복지시설, 민관기관등과 업무협약, 복지네트워크, 기관연계활동 등 연평균 65회 이상 진행
- 2010년부터 지역상권의 자원을 확보하고 지역과 연계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상가와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고, ‘딱하루매출’과 같은 사업 및 지역 내 장애인식개선 홍보 등 활동을 실시. 또한 2025년부터 경제난으로 인한 지역 상가를 지원하여 지역 내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자 ‘상생스토어’ 사업을 실시

나) 추진방향

- 장애인복지 확대를 위한 지역연계망 강화
 - ▷ 배경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 특정 단체나 기관이 가진 자원만으로는 효율적 해결이 쉽지 않거나, 다양한 자원들의 네트워킹을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문제해결의 방안임. 또,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역량강화(empowerment) 된 지역주민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자원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임. 이에,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단체, 복지시설, 민관기관, 지역상가등과 연계 및 협약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장애인식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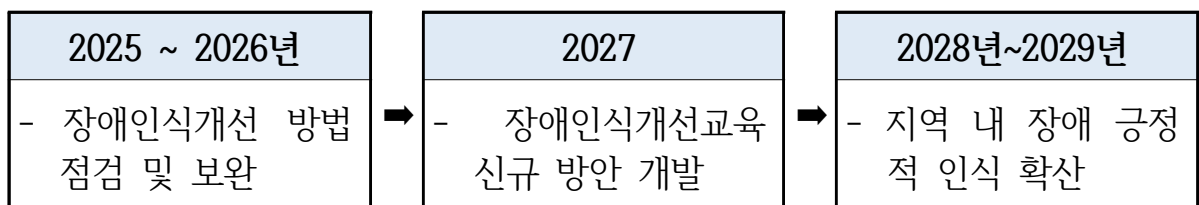
가) 현황

- 양천구 내 초·중·고등학교 및 기업체, 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4년간 평균 18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해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매년 2회 이상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부스 운영 등을 진행

나) 추진방향

-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확대 및 시행
 - ▷ 배경 : 장애인식개선교육효과실태조사(2021,한국장애인개발원)에 의하면 교육후 장애에 대한 인지의 긍정적변화가 69.3%로 조사됐으며, 교육 이후 본인의 긍정적 변화가 71.4%로 나타남. '편견'이 있으면 지역 내 실질적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확대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씨앗기	성장기	결실기
-----	-----	-----

4) 지역복지사업지원

가) 현황

- 지역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연평균 1,300명 인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2030세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를 결성하여 복지관 홍보 및 장애인식개선 활동을 지원
- 장애인복지사업 및 주요 행사, 활동프로그램 등 복지관의 역할을 홍보하는 기능부터 장애에 이해, 치료 정보, 인식개선, 자원봉사 모집 등 지역주민을 다양한 정보를 연평균 100건 이상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함. 또한 연 7회 이상 기관방문을 통해 복지관의 역할과 운영노하우 등을 공유하여 장애인 복지 균형 발전을 지원
- 모금행사, 스마트 모금, 정기후원 모금, 지정 후원 등 다양한 모금 방식을 통해 결연후원 대상자 및 저소득장애인 가정 등에 연평균 250건 (2,800만원)이상 프로그램, 치료비, 교육비, 생활 환경개선 등 지원. 또한 2017년부터 자선 골프대회를 통해 새로운 모금 방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업 및 후원자들을 모집할 기회와 지속적인 장애인복지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

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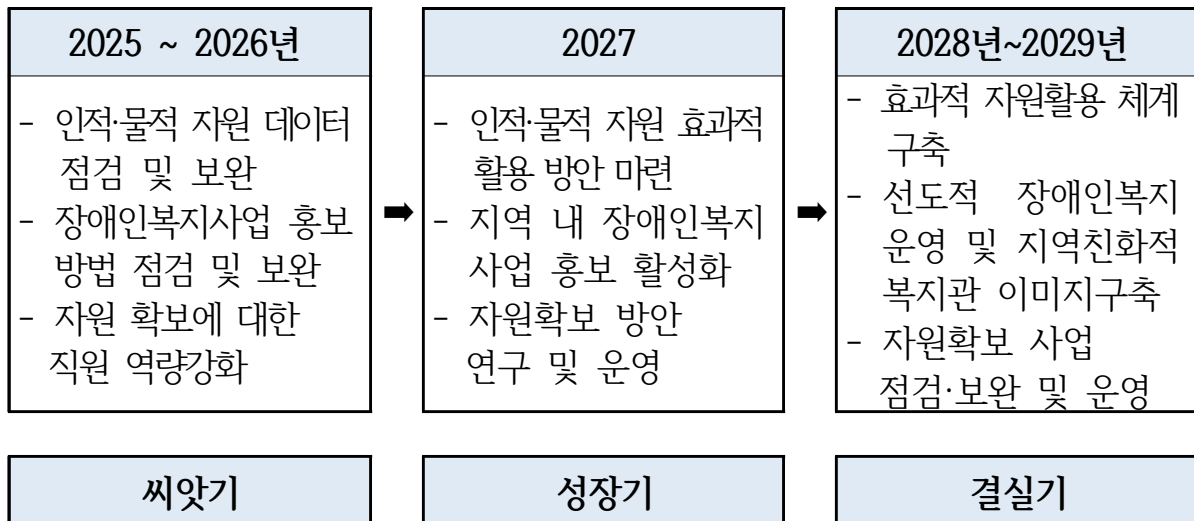
- 인적·물적자원 관리 및 활용 체계 구축
 - ▷ 배경 :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및 실습생발굴, 교육, 관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연계개발이 필요함.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데이터를 점검하여 적합한 곳에 사용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
- 장애인복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감수성 및 장애인복지관의 중요성 인식 확대
 - ▷ 배경 : 장애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의 어려움과 필요에 공감하며, 차별

없이 존중하는 “장애 감수성”이 높아질수록 포용적 지역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이 됨.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홍보사업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정보 접근성 향상, 복지 서비스 이용률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및 참여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상호 이해를 높여 장애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복지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다양한 자원확보 방안 마련

▷ 배경 :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자원봉사, 기부 등의 인식이 변화는 만큼 다양한 방식의 인적·물적 자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장애인이 삶의 주인공으로 될 수 있게 자립을 디자인해 가겠습니다.

나. 사업목표

- 주거, 경제, 정서적 독립을 통한 완전한 자립 성취
- 욕구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훈련으로 직업(자립)능력 향상
-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선택과 결정의 능력 강화
- 현장과 지역 중심의 자립 기술 훈련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일상생활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능력 향상
-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삶 지원
- 안정적인 소득과 자산으로 자신과 가족의 경제적 안정 추구
- 중요한 선택을 스스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 향상
- 자립 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지원

라. 주요사업

- 자립생활지원
- 직업 적응 훈련
- 진로 상담 및 직업 평가
- 고용
- 전환교육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자립생활지원

가) 현황

- 서울시는 2013년부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21년까지 서울 내 장애인 시설 거주자 수가 28.7% 감소
-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 역량 향상을 위해 6명으로 구성된 자립준비반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교육, 금전관리교육, 건강관련교육, 가사활동교육 등의 자립 역량 향상을 지원
- 독립을 준비하기 위한 독립주거 체험에 6명 참여,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참여와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에 9명 참여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의식주 자립을 위해 7명을 대상으로 개별화 계획을 세워 자립 추진

나) 추진방향

- 자립생활 위한 생활 기반 자원 확보
 - ▷ 배경 : 자립생활 필수 요소인 직업, 대인관계, 사회활동 등이 원활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직업 훈련 프로그램, 취업 지원, 사회적 교류 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에 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자립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 배경 : 2022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의하면 발달장애인은 보호자에게 의지하게 되어 독립생활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일상생활 중 자기 결정에 의한 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
- 장애인의 안정된 독립 생활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
 - ▷ 배경 : 장애인 전용 주택, 청년 자립 주택 등 장애인이 자신만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지 보조금, 시설과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공동체 주택에서 함께 살며 서로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각자의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안전을 보장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직업적응훈련

가) 현황

-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2024년 직업준비반 프로그램에 12명, 연인원으로 2,283명 이용. 취업전 단계에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직업을 모색하고 직업적 능력을 높여가는데 중점을 두고 참여
-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직업준비반을 별도로 운영. 이용 장애인에 대한 상황 평가 50명, 과정평가 20명, 개인별 직무 지원 147명 실시
- 20세기 중반 이후 선진국에서 직업재활이라는 개념이 확산되며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적극적인 훈련과 취업 강조

나) 추진방향

- 수요자 중심 직업 재활 서비스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 ▷ 배경 : 장애인 개인의 필요에 맞춰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 이를 위해 복지, 교육, 고용 관련 부처는 물론, 서비스를 수행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기밀하게 협력하는 체계 구축
- 현장 중심 훈련 확대를 통한 취업률 제고
 - ▷ 배경 : 실제 현장에 필요한 능력을 키워 취업 후에도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 유지
- 개별적 직업적응훈련 계획과 체계적인 성과 평가 진행
 - ▷ 배경 : 실제 일터와 비슷한 환경에서 적절한 행동, 가치관, 그리고 태도를 배우고 자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진로 상담 및 직업 평가

가) 현황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2024년 발달장애인 일과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구직활동 시 겪은 애로사항으로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려는 일자리(사업체) 자체가 없거나 부족함’이 39.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근로 능력, 기술, 경력 등이 부족함’ 13.2%, 발달장애인 취업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움’ 12.4%로 나타나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는 성공적인 취업을 이끌어내기 위해 진로 상담, 직업평가를 진행
- 취업의 욕구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에 진로상담 12회, 취업상담 40회, 직업평가 9회, 서비스 안내 및 연계 10회를 제공
- 진로 상담은 단순히 취업을 넘어 개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태도를 기르는데 필요

나) 추진방향

- 장애인과 보호자의 욕구 파악, 진로에 대한 상담과 직업 평가 진행
 - ▷ 배경 : 취업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직업 상담과 직업능력 평가의 중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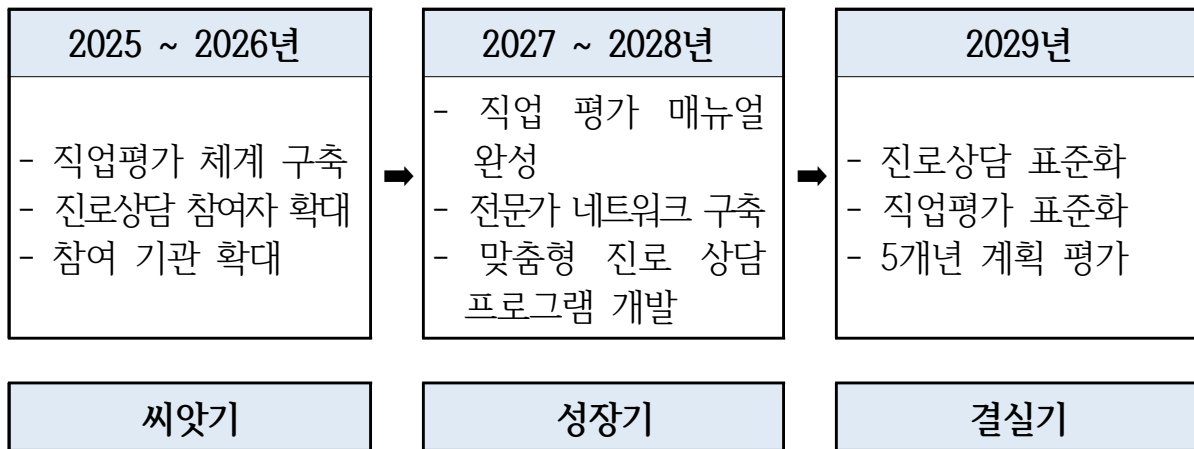
○ 장애인 맞춤형 취업 정보 안내

- ▷ 배경 : 장애인이 구직을 위해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장애인고용공단, 특수 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등 장애인과 관계된 시설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나 양천구에서 장애인을 전문으로 복지, 취업, 여가, 문화 등 복합적인 복지 지원을 하고 있는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여 장애인 전문 시설의 역할 수행

○ 학교 생활 적응과 학습 능력 향상

- ▷ 배경 :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돕고 장애로 인한 학업 성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학습 지도 제공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고용

가) 현황

- 우리나라 2024년 장애인 고용인원수는 298,654명이며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2023년 대비 0.04%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전년 보다 7천331명 증가
-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는 직업훈련과 직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고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여 2023년 30명, 2024년 33명 고용 확정
-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사업체 개발과 취업 알선, 취업 유지를 위한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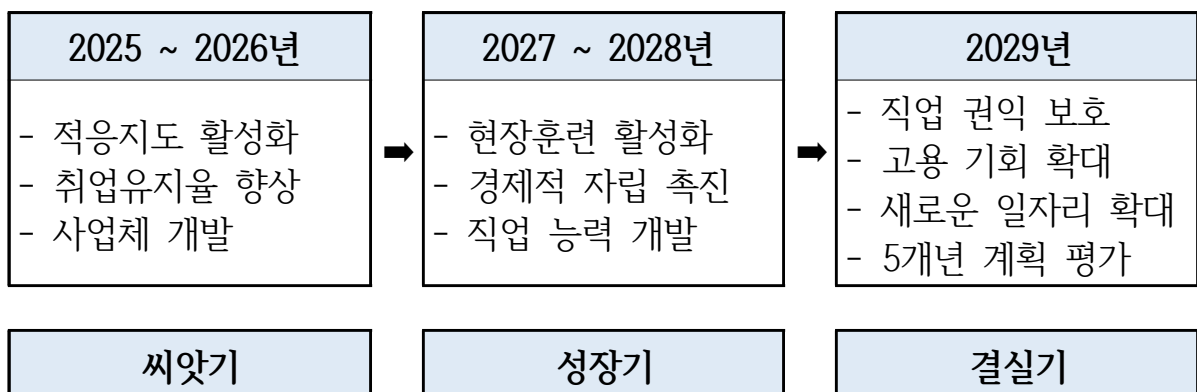
지도와 사후관리, 적응 지도 등을 진행하여 취업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사업 추진

- 많은 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생산성이 떨어질 것 같다’, ‘편의 시설 설치 비용에 대해 부담감이 있다’, ‘비장애인과 갈등이 발생할 것 같다’ 등의 우려나 편견 등의 인식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나) 추진방향

- 개인의 역량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율 향상
 - ▷ 배경 : 개인의 뛰어난 능력과 잠재력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은 단순히 소득을 넘어 개인의 삶에 큰 활력이 되며 자아실현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장애인 당사자가 선호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 연계
- 맞춤형 직업 훈련 프로그램 제공으로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
 - ▷ 배경 :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장애인 고용 장려를 위한 사업주 인식 개선
 - ▷ 배경 : 기업들이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 홍보하며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협약 체결 등을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에 참여

다) 연차별 추진계획



5) 전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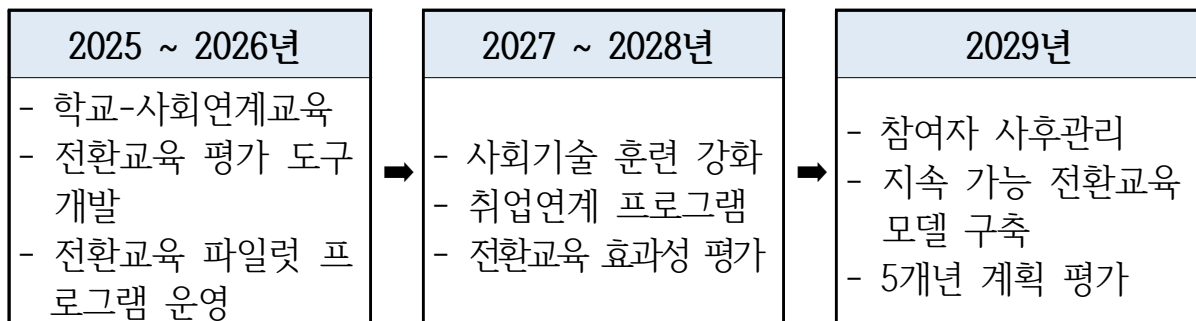
가) 현황

-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직업전환교육과 방학기간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자립전환교육을 실시
- 2024년 찾아가는 전환교육에 1개 학교 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자립생활 준비 캠프에 4명의 학생이 1박2일 참여. 연인원으로는 120명의 학생이 자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양천해누리복지관 전환교육에 참여
- 장애 청소년의 성인기 전환에 대한 준비와 더불어 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꾸준히 증가 추세

나) 추진방향

- 성인기를 준비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습 중심 자립생활교육 실시
 - ▷ 배경 : 실습 중심 교육은 동료나 교사와의 협력적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키울수 있으며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훈련으로 성인기로의 전환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
- 자립적인 생활에 대한 자신감 향상
 - ▷ 배경 : 지역사회 기반 자립을 지향하는 탈시설화 움직임으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하게 불리된 삶을 사는게 아닌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변화 발생
- 장애 청소년이 진로의 방향을 탐색하여 자립 능력 향상 고취
 - ▷ 배경 : 직업 체험의 영역을 넓혀 장애 청소년이 지역사회 내에 근접해 있는 사업체에서 직업 경험을 하고 이를 토대로 진로의 방향과 방법을 습득하여 성인기 준비

다) 연차별 추진계획



씨앗기

성장기

결실기

가. 비전

- 배움으로 넓히고, 문화로 함께하는 모두의 성장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나. 사업목표

- 학습, 문화, 여가를 통한 자기계발과 사회참여 역량 강화
- 지역친화적·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 맞춤형 지원을 통한 학습·정서·사회성 발달을 아우르는 전인적 성장 촉진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변화하는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
- 평생학습, 교육, 미술을 통합한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친화적 배움문화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 참여하는 주도적 주민모임 확대

라. 주요사업

- 평생학습
- 주민모임
- 청소년성장지원
- 교육지원
- 미술활동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평생학습

가) 현황

- 복지관은 2025년 현재, 367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글교실, 해누리제과 등 삶의 만족도 향상 위해 29개 평생교육·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활용은 29개 프로그램 중 10개 프로그램이 외부지원금 재정적 자원, 12개 프로그램이 인적 자원(강사 10개, 봉사자 2개)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 2025년 평생학습 17개 프로그램의 이용자 모집결과, 127명 모집 대비 263명 접수하여, 146명 대상자 선정하고 75명 대기중임. 이중, 한글교실, 수학교실, 스마트교육(중급반), 악기교실, 노래교실의 이용 욕구 높음
- 대기자 해소 및 참여 기회 확대하기 위해 6개 프로그램을 반기 단위(상·하반기)로 운영

나) 추진방향

- 변화하는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설계
 - ▷ 배경 : 장애인 학습자는 여가 및 문화생활을 향유하면서도 그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적이 자신의 상황과 욕구에 부합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2023,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 평생학습, 교육, 미술을 통합한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 ▷ 배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반영. 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조직변화로 통합적인 교육·문화 기능 강화
-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형성 및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배경 : 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력망으로 지속 가능한 배움문화 체계 구축
- 프로그램 대기자 해소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 ▷ 배경 : 평생학습 17개 프로그램의 이용자 모집결과, 127명 모집 대비 263명 접수하

여, 146명 대상자 선정하고 75명 대기중

다) 연차별 추진계획

2025 ~ 2026년	2027 ~ 2028년	202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모색 -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 지역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확대 - 지역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구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구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화 -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강화 - 지역친화적 평생학습 체계 강화 		
씨앗기	성장기	결실기

2) 주민모임

가) 현황

- 양천구 내 평생교육 및 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55개 시설 중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6개소에 불과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복지관은 2025년 현재, 54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보치아동아리, 서예자조모임 등 공동체 의식 증진을 위해 6개 주민모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자원 활용은 6개 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이 외부지원금 재정적 자원, 1개 프로그램이 인적 자원(강사) 활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방향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친화적 주민모임 체계 구축
 - ▷ 배경 : 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력망

으로 지속 가능한 배움문화 체계 구축

- 지역주민이 직접 기획, 운영, 참여하는 주도적 주민모임 확대
 - ▷ 배경 : 지역친화적·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주민 공동체 활성화
-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프로그램 확대
 - ▷ 배경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청소년성장지원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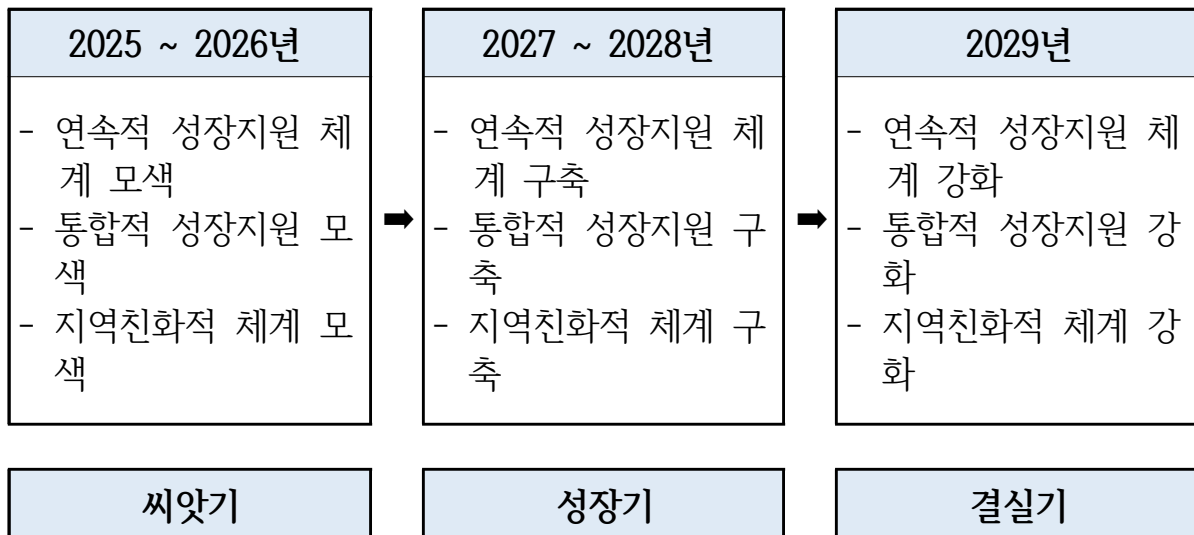
-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에 해당하는 만 9세 이상 24세 미만 양천구 거주 등록장애인은 약 800여명임. 양천구에는 장애인복지관 1개소를 포함하여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 총 30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성인장애인의 취업과 자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상대적으로 부족함
- 복지관은 2025년 현재, 중·고등학생 청소년 4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사회성교실, 지역탐방교실 등 사회적 기술 향상을 위해 6개 프로그램 운영
- 6개 프로그램 중 4개 프로그램 학기중 운영, 2개 프로그램 방학 중 집중 운영으로 단절 없는 성장지원 도모
- 지역자원 활용은 6개 프로그램중 2개 프로그램 인적(봉사자) 지역자원 활

용하여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방향

- 중등에서 고등까지 연속적 성장지원 체계 구축
 - ▷ 배경 : 장애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절 없는 교육 지원 필요
- 사회적 기술, 자기관리 능력 등 통합적 성장지원
 - ▷ 배경 : 장애 청소년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확립, 안정적인 성인기 전환을 위한 통합적인 경험 필요
-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친화적 청소년성장지원 체계 구축
 - ▷ 배경 : 복지관이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거점 기관으로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협력망으로 지속 가능한 배움문화 체계 구축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교육지원

가) 현황

- 복지관은 2025년 현재,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모아지 원, 영유아교육 등 전인적 발달향상을 위해 5개 프로그램 운영
- 장애위험군 영유아 및 장애아동의 가족지원을 위해 발달상담 연 9명,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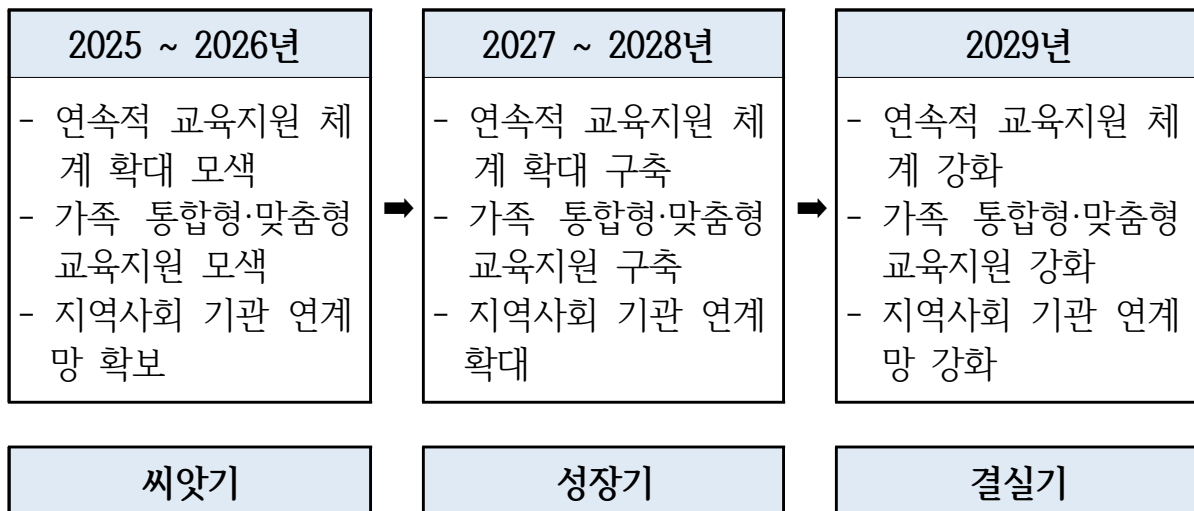
아지원 연 6명을 대상으로 진행

- 기관연계를 통해 발달지연 아동 조기 선별,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자문 제공 및 보호자 상담 연 20건 실시

나) 추진방향

- 영유아에서 아동(초등)까지 연속적 교육지원 체계 확대 구축
 - ▷ 배경 : 장애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화 지원계획을 기본으로 한 분절 없는 교육 지원 필요
- 가족 통합형·맞춤형 교육지원
 - ▷ 배경 : 코로나 이후 출생 영유아의 발달지연 증가 징후 지속적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기선별 및 지원, 전반적 양육환경 점검 필요
-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 ▷ 배경 : 보육·교육·돌봄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 및 아동(느린학습자)이 꾸준히 관찰되고 있어 각 현장에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관연계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5) 미술활동

가) 현황

- 복지관은 2025년 미술활동 사업계획 수립시 개별심리미술 연 14명, 그룹

심리미술 연 6명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그룹 이용자 욕구 낮아 그룹심리미술 연 3명으로 축소 개별심리미술 연 16명으로 확대하여 프로그램 운영

- 2025년 평생교육사업에서는 마음건강교실과 뇌운동교실 2개의 그룹미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 14명을 대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운영하여 보다 다양한 교육적·정서적 지원 한계

나) 추진방향

- 자기표현과 정서적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미술 개별 중심 운영
 - ▷ 배경 : 심리미술의 그룹 이용 욕구 낮아 2024년부터 점차적으로 그룹 프로그램 축소하여 운영. 이용자 욕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심리미술 지원을 통해 전문성 강화
- 평생학습, 심리미술, 미술교육을 통합한 다차원적,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 ▷ 배경 :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고도화' 반영. 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에 의거한 조직변화로 통합적인 교육·문화 기능 강화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기능향상 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삶의 영역에서 건강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나. 사업목표

- 이용인과 동행하는 서비스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체계 구축
- 운동·일상생활동작·의사소통·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서비스 지원
- 이용인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 지원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이용인 활동환경 반영 및 욕구 기반한 서비스 지원방식 적용
- 생애주기 전환기 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연계 강화
- 이용인 주변자원과 연계를 통한 서비스 지원 확장
- 표준화된 평가도구 및 팀 접근을 통한 서비스 전문성 강화
- 스마트 재활 접목 등 서비스 다각화

라. 주요사업

- 물리활동
- 작업활동
- 수중활동
- 언어활동
- 놀이활동
- 음악활동
- 심리운동
- 재활운동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물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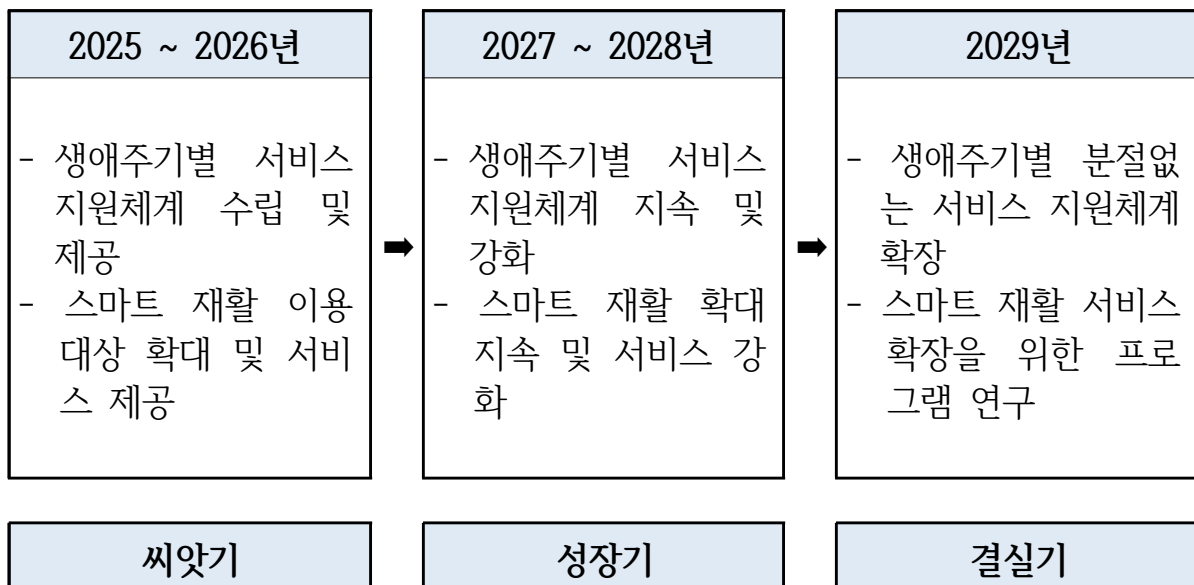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70명, 연인원 3,069명 뇌병변, 지체, 발달지연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2명 개별 및 그룹 물리활동과 스마트활동 3개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자 147명 대기중에 있음
- 움직임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운동 발달 촉진, 기능적 움직임 유도, 자세 및 불필요한 움직임 조절, 균형 및 보행훈련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이용인의 욕구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적용
 - ▷ 배경 : 이용자 중심의 생애주기별 분절없는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통한 스마트 재활 프로그램 확장
 - ▷ 배경 :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해 조성된 스마트발달트레이닝 프로그램 적용 대상 확대 제공해 재활활동 참여 유도 및 동기 극대화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작업활동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39명, 연인원 2,113명 뇌병변, 지체, 지적, 발달지연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2명 개별 및 그룹 작업활동과 스마트활동 3개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자 216명 대기중에 있음
-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을 위해 일상생활동작 훈련과 지각과 인지기능, 감각기능, 상지 기능 훈련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이용인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다각화
 - ▷ 배경 : 개인별 기능에 따른 목표 수립 및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이용인의 다양한 욕구 반영한 맞춤형 접근 필요
- 최신 재활 경향에 맞춰 다각적 접근을 통해 전문성 확장
 - ▷ 배경 :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선제적 접근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수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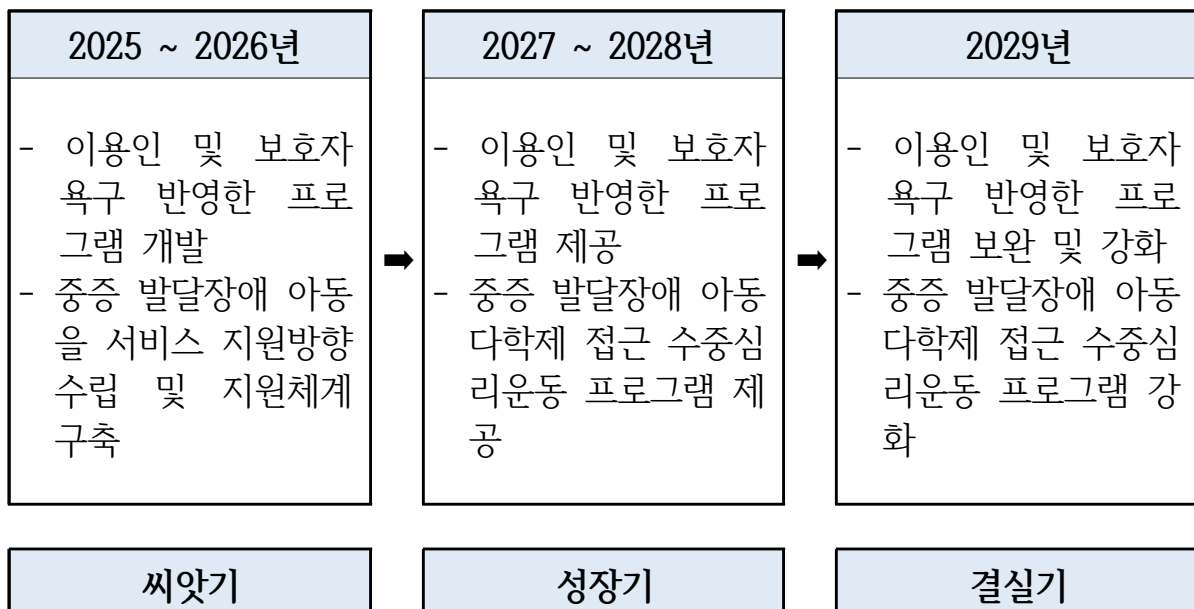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42명, 연인원 2,124명 뇌병변, 지체, 지적·자폐성, 발달지연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2명 개별 및 그룹 수중활동과 수중심리운동 3개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자 96명 대기중에 있음
- 움직임 수행능력 증진을 위해 수중의 특성을 이용한 관절가동범위 향상, 근력 및 지구력 강화, 균형 감각, 신체 협응력 발달을 위한 훈련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이용인 및 보호자 욕구 반영한 서비스 목표 설정 및 수중재활프로그램 개발
 - ▷ 배경 : 장애 유형, 신체 능력, 기능 상태를 상담을 통해 사전 파악하고 개인별 수중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해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필요
- 중증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 수중심리운동 지속 및 전문성 강화
 - ▷ 배경 : 지상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고유수용감각 자극을 통한 발달 촉진, 운동능력 향상으로 신체 기능의 협응력 증진 효과 기대

다) 연차별 추진계획



5) 놀이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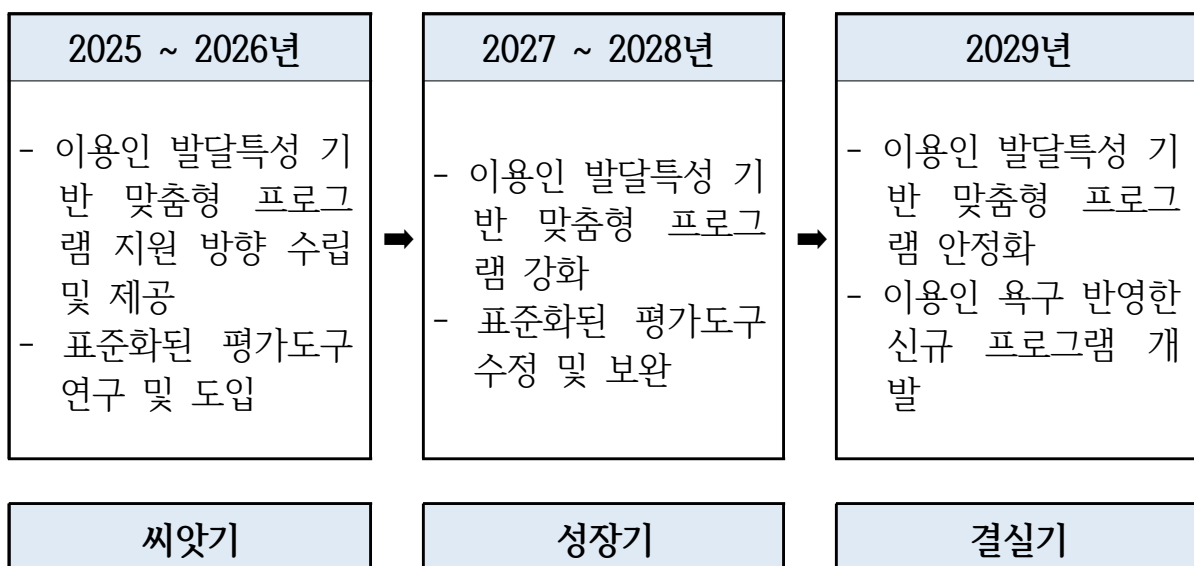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27명, 연인원 832명 발달지연 및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1명 개별 및 그룹과 형제놀이활동 3개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자 169명 대기중에 있음
- 긍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자존감 증진, 감정 조절 및 사회성 기술 개선, 욕구 표현,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이용인의 발달특성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놀이지원체계 구축
 - ▷ 배경 : 개인별 발달 수준과 특성, 강점을 파악하고 목표 설정을 통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표준화된 평가도구 연구 및 활용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강화
 - ▷ 배경 : 프로그램 안정화와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평가도구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분석으로 평가지표 표준화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6) 음악활동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27명, 연인원 1,562명 발달지연 및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1명 개별 및 그룹 음악활동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자 298명 대기중에 있음
- 심리 정서적 안정과 발달 촉진을 위해 치료적 노래부르기, 악기연주, 송라이팅, 언어·비언어적 의사소통 활동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평가도구 연구 및 보안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 계획 수립
 - ▷ 배경 : 이용인의 기능 평가 수량화 및 객관적인 자료 도출을 위한 평가 체계 개선을 통해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 교구교재 관리 및 환경개선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 ▷ 배경 :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집중도 있는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의 치료 효과 극대화로 이용인의 참여 유도 향상 및 긍정적 경험 제공

다) 연차별 추진계획



7) 심리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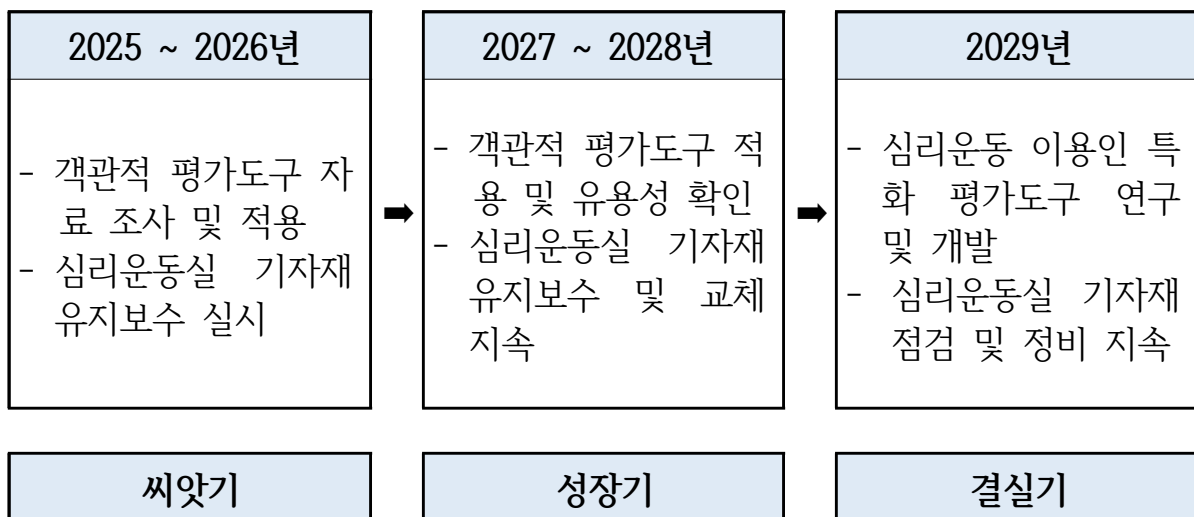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44명, 연인원 1,783명 발달지연 및 신체활동,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으로 수행인력 1명 개별 및 그룹 심리활동 프로그램 진행함 프로그램 이용을 위한 대기 129명 대기중에 있음
- 신체 움직임을 매개로 심리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발달 촉진을 위해 신체 지각, 물질 교감, 환경 경험, 자아 발달 및 사회성 향상 활동 등 실시

나) 추진방향

- 객관적 수치화가 가능한 평가도구 활용한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과 전문성 강화
 - ▷ 배경 : 현재 유아 정서 지능 체크리스트, 독일판 심리운동평가 도구를 사용해 평가에 활용하고 있으나 평가 체계화 통한 객관적 평가위해 수치화 필요
- 기자재 관리 및 환경정비를 통한 프로그램 지원 체계 강화
 - ▷ 배경 : 프로그램 기자재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정비와 체계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이용인 안전사고 예방

다) 연차별 추진계획



8) 재활운동

가) 현황

- 2024년 실인원 168명, 연인원 5,800명 20세 이상 성인 중증 뇌병변, 신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행인력 1명 재활운동실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 진행
- 운동기능 유지 및 향상을 위해 재활운동기구를 이용한 개인별 자가 운동 방법 통해 근력 강화, 관절 가동범위 증가, 통증 감소 등 기능 회복 활동 실시

나) 추진방향

- 개별화된 운동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인의 재활에 체계적인 접근과 이에 따른 신체 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운영 체계 수립
 - ▷ 배경 : 근력 강화, 근육 재교육, 관절 가동 범위 회복으로 신체 기능 유지를 통해 2차 장애 발생 예방
- 노후된 기구 관리 및 교체를 통해 이용인의 재활운동을 위한 원활한 환경 조성
 - ▷ 배경 :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이용인 만족도 향상과 장기 적인 운동기구 수급 계획을 통한 재활운동 사업 안정적 운영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최종증발달장애인의 좋은 행동을 유지하겠습니다.

나. 사업목표

- 최종증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감소 및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 맞춤형 개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체계화
- 가족 및 지역사회의 돌봄 부담 완화
- 다학제적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사람중심계획(PCP)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 지역사회 중심의 솔루션위원회 활성화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민관협력 강화
- 이용자 맞춤형 전이프로그램모델 개발 및 적용

라. 주요사업

- 통합돌봄사업
- 솔루션위원회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통합돌봄사업

가) 현황

- 2024년 기준, 전국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 명(전체 인구의 5.1%)이며, 이 중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명(10.3%)으로 집계됨. 발달장애인은 주간 보호시설, 복지관, 거주시설 등 다양한 기관을 이용하나, 여전히 성인기의 주간활동이나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은 제한적임. 특히 낮 시간 주 생활장소는 가족(31.8%)이나 혼자 집에 머무는 경우(20.2%)가 많아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확충이 요구되고 있음(도전적행동 발달장애인 지원실태 및 교육 욕구 조사, 2023,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19년부터 최종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까지 서울시지원사업 ‘챌린지’를 운영하였음. 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2명의 지원인력이 지원하였으며, 2024년 만족도 조사결과 총 10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최종증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서비스를 4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1:1 지원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음
- 최종증발달장애인의 도전적행동 감소와 의미있는 낮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행동지원, 그룹활동, 지역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음

나) 추진방향

- 사람중심계획(PCP) 기반의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 ▷ 배경 : 현재 지역사회는 여전히 획일적인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많아, 개별적인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발달장애인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으며, 보호자 역시 맞춤형 지원을 원하고 있음. 2024년 ‘챌린지’ 사업과 통합돌봄 시범 운영 경험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선호를 반영한 계획을 세웠을 때 도전적 행동이 감소하고 참여 동기가 높아지는 성과가 확인되어 사람중심계획에 기반한 통합돌봄서비스 운영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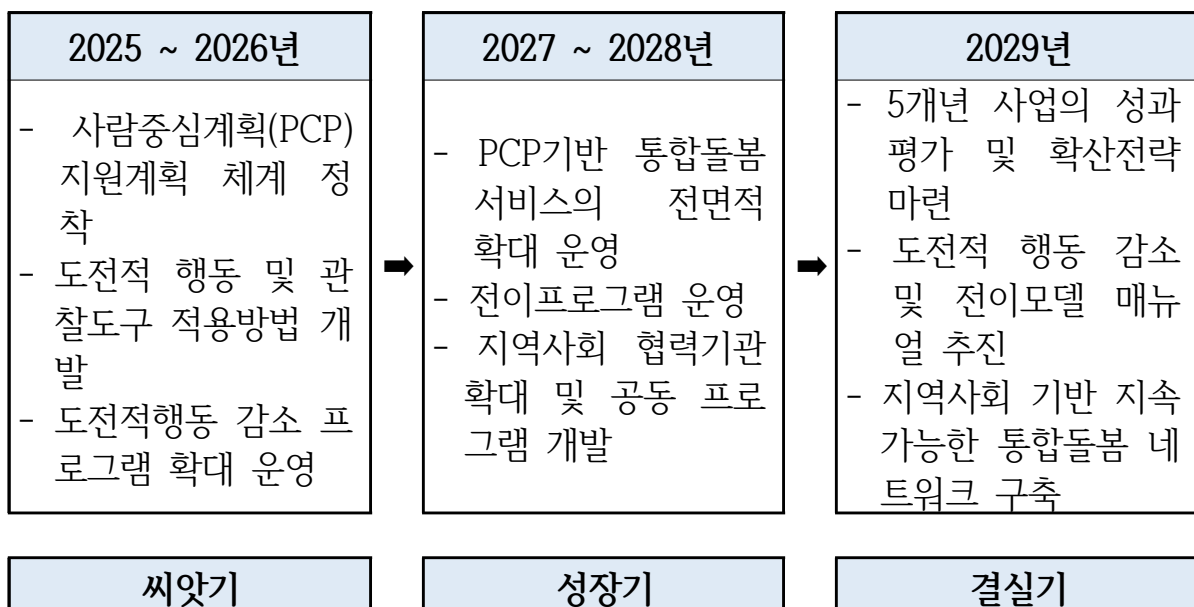
○ 도전적 행동 감소 및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배경 : 현재 지역사회에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함. 이로 인해 가족이나 기관에서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도전적 행동을 이유로 입소 거절·타 기관 의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당사자는 안정된 환경에서 의미 있는 활동과 긍정적인 경험을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진행한 긍정행동지원, 그룹활동, 지역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운영 경험에 따르면, 맞춤형 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도전적 행동 빈도가 점차 감소하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관찰되었음. 이는 개별화된 중재와 지속적인 훈련이 행동안정과 사회적응에 효과적임을 보여주었으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정책에서도 도전적 행동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도전적 행동 감소와 지역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이용자 맞춤형 전이프로그램모델 개발 및 적용

▷ 배경 : 발달장애인은 학교 졸업이나 성인기 진입, 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기마다 돌봄의 공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도전적 행동이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당사자는 성인기 이후에도 의미 있는 낮 활동과 직업 경험, 지역사회 생활을 원하며, 가족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이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 복지관의 지역사회적응훈련 경험에서도 반복적·지속적 지원을 받은 이용자는 행동이 안정되고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긍정적인 사례가 확인되어 맞춤형 전이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솔루션위원회

가) 현황

- 서울시 관할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활동시설 269개소(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기관, 평생교육센터,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포함)를 통해 총 4,994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8.5%(1,302명)는 도전적 행동을 보유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기적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며, 도전적 행동을 이유로 한 입소 거절·타시설 의뢰 사례가 32.1%에 달함(서울시복지재단, 2024, Vol.10)
- 양천구 내 장애인은 2025년 6월 기준 발달장애인은 1,615명(자폐성장애 396명, 지적장애 1,219명)이며, 시설은 2025년 기준 23개소(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포함)을 통해 총 301명이 서비스를 이용중에 있음
- 그러나 현장의 시설들은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지원할 전문적 개입체계가 부족하여, 기관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복지관·학교·주간활동시설 등은 전문 인력과 다학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례별 맞춤형 자문과 공동개입을 요청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개입 모델과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24년까지 성인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며 효과적인 지원방법을 적용하며 도전적행동을 감소에 효과적이었음. 이에 2025년부터 외부기관 의뢰를 바탕으로 다학제적 접근방식의 솔루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나) 추진방향

- 사례별 맞춤형 다학제적 개입체계 확립
 - ▷ 배경 : 시설 단독으로는 도전적 행동을 가진 최중증발달장애인의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특수교육·심리·의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공동개입 체계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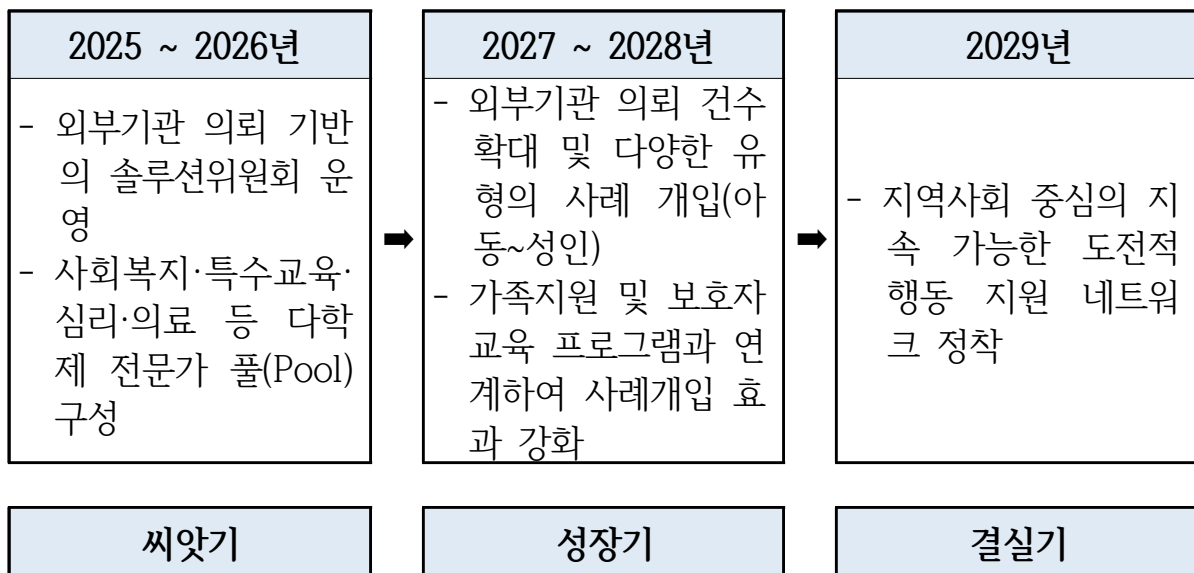
○ 외부기관 연계 솔루션위원회 운영 확대

- ▷ 배경 : 복지관, 주간활동시설, 학교 등에서 전문적 자문과 공동개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외부기관 의뢰 기반의 다학제적 솔루션위원회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 ▷ 배경 : 개별 사례 해결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도전적 행동 지원모델을 공유·확산하여 장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복지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을 하는 전문 행정팀이 되겠습니다.

나. 사업목표

- 고객 만족 중심의 ESG 경영 체계 구축
- 시설.환경.안전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복지관 유지
- 종사자 처우 개선, 연수, 교류 활동 등 직원역량 강화
- 복지관 운영 전반의 체계적 관리와 업무 프로세스 개선
- 회계, 문서, 인사 등 행정 절차의 공개성과 신뢰성 확보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친절 서비스, 인권이 담긴 고객 매뉴얼 제작 및 CS(고객만족) 전략 수립
- 사회복지관의 맞춤형 ESG 경영 기초 마련 및 사업의 내재화
- 사회복지관 기관에 맞는 안전관리 매뉴얼 보완 및 안전교육 확대
- 설비 기기 및 배관 점검 확대 및 중단기 계획 수립을 통한 시설 안전 향상
- 신규 직원 대상 온보딩 매뉴얼 제작(기관 비전, 미션, 구조, 용어, 업무흐름 등)
- 내부 소통(정기 타운홀 미팅, 의견 수렴제도 등) 강화 및 직원 교류 프로그램(부서 간 협업 프로젝트 등) 확대
- 디지털 행정시스템 도입의 하나로 전자문서 시스템, 클라우드 기반 협업 툴 확대
- 행정문서 간소화로 업무 효율 극대화, 전자결재 범위 확대
- 회계, 문서, 인사 SOP(표준운영절차,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문서화
- 복지관 기록물(기안, 문서, 공문 등) 보존 체계 보완 및 보관 시설물 개선

라. 주요사업

- 사업계획 및 수립 평가
- 고객 만족 윤리경영(ESG 경영 포함)
-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 직원역량 강화
- 조직문화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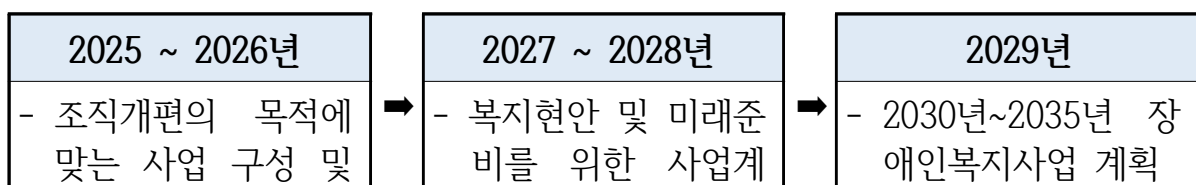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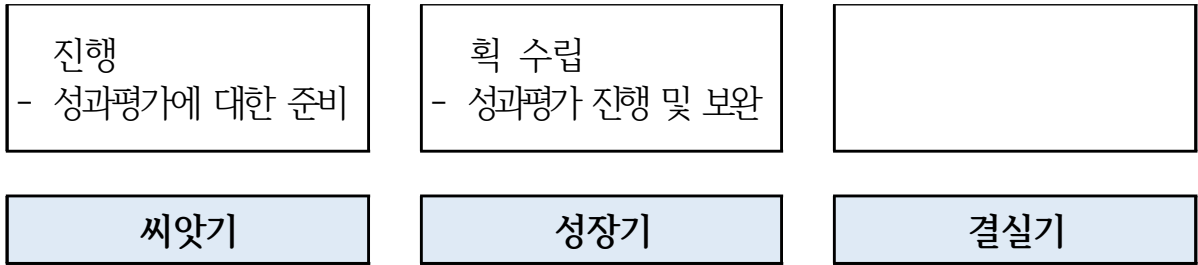
- 매해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과정 및 정도를 연 3회 점검하여 사업의 방향 및 효율적인 전달 방법을 고민
- 연 1회 이용자 욕구 및 만족조사 분석결과를 참조하여 차기 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나) 추진방향

- 복지 현안 및 미래에 대해 복지 문제에 대해 사업으로 대비
 - ▷ 배경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사업으로 해소하며 정책 변화에 대한 실제적 준비가 필요
- 사업 계획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 확인
 - ▷ 배경 : 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여 수정하여 진행하여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이 중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고객 만족 윤리경영(ESG 경영 포함)

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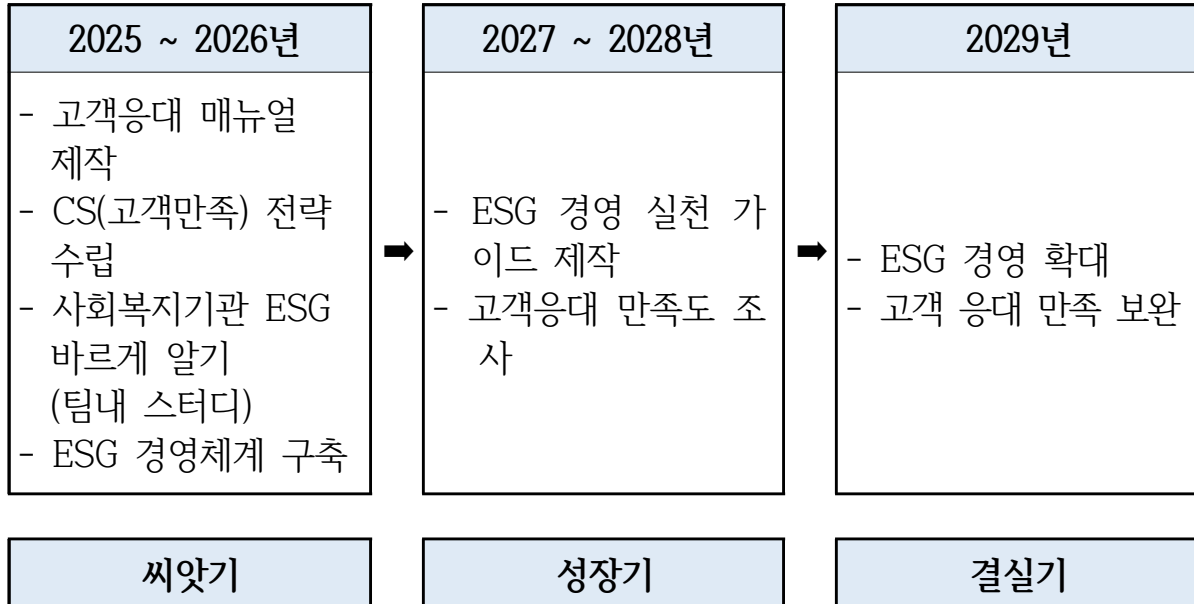
- 「고객 만족 윤리경영」 속의 세부 사업으로는 이용자 인권 교육/이용자 욕구 및 만족도 조사/고객과의 만남(사업설명회)/행복한복지관만들기위원회/고충처리위원회(이용자) 운영
- 2024년의 연인원 42명, 총 15건 진행하여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행복한 복지관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실행하였으며,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겪는 고충을 해결함
- 기후변화, 팬데믹 등의 사회적 변화로 인해 지속 가능한 경영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으며, ESG는 기업뿐만 아니라 비영리사회복지기관에 필수적인 요소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2024년 말, 전국 사회복지관 ESG 실천 사례에서 51개 사회복지관의 사례가 수록

나) 추진 방향

- 고객의 의견을 반영한 서비스 개선 시스템 마련
 - ▷ 배경 : 고객은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하여 이를 빠르게 조사여 사업에 반영할 필요 또한 고객은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해결을 기대하며, 불만은 빠르게 확산하여 사전 예방적 문제해결과 실시간 소통이 중요
- 복지관의 사업 방향 및 설명으로 투명한 복지관 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신뢰
 - ▷ 배경 : 복지관은 공공자원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이 필수 또한 투명한 운영의 이용자의 알 권리, 선택권, 참여권을 보장하는 기반
- 사회복지관 맞춤형 실천 가이드 마련
 - ▷ 배경 : 기존 ESG 실천 가이드는 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사회복지관 특성과 운영

방식에 적합하지 않아 사회복지관의 특성을 고려한 실천 가이드가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3) 직원역량강화

가) 현황

- 직원역량강화사업 속의 관내교육, 관외교육, 직원연수, 신입직원교육 운영
- 2024년의 총 733명 직원이 역량강화교육에 참여
- 연초 직원교육 욕구 조사를 통해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인재상.지역 사회환경 변화.법.제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직원 교육 진행
- 기관 비전 공유와 부서 간 협력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직원 연수 지원
- 연 1회 연구 사업을 통한 지역 욕구 및 미래 사업의 방향을 설정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 보완

나) 추진방향

○ 신규 직원 온보딩 매뉴얼 제작

- ▷ 배경 : 기관, 비전, 미션, 구조, 용어 업무흐름도 등이 담긴 온보딩을 제작하여 기관에 빠르게 적응하고 업무 이탈 방지에 대안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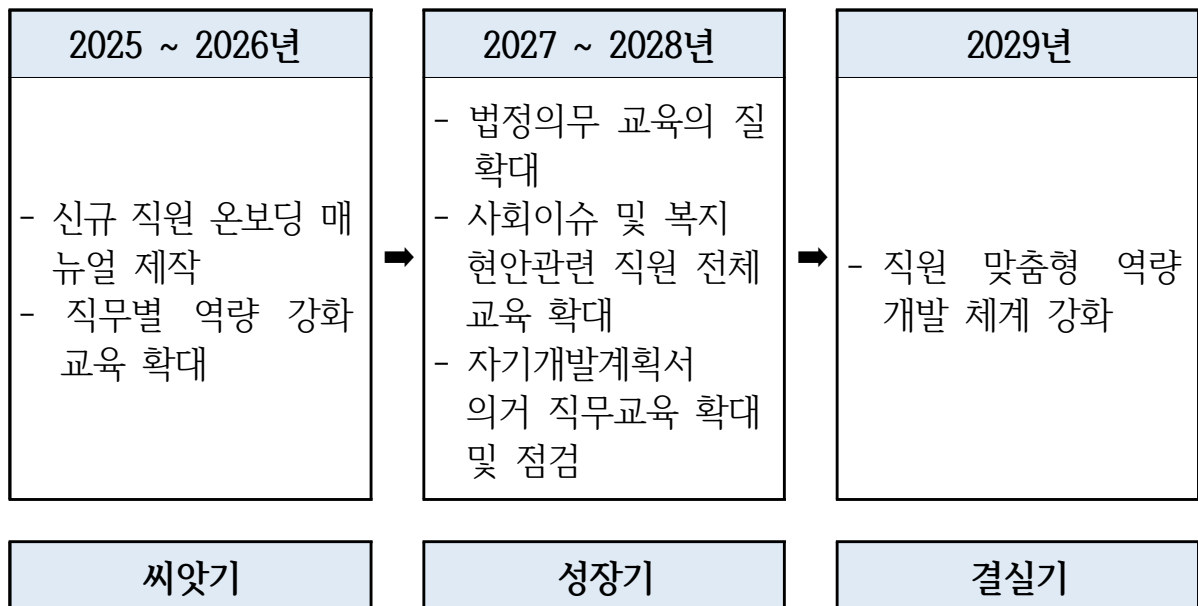
○ 직무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 배경 : 기관 운영 분야 운영 지침 '직원역량 강화지침'에 따라 복지관 인재상에 맞는 역량 개발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 및 기술 습득 필요

○ 연구·자문 및 외부 자원 확대

- ▷ 배경 :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전문적 연구와 외부 자문을 강화하고, 기금 유치를 통한 안정적 자원 확보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조직문화사업

가) 현황

- 조직문화사업 속의 관장과의 시간, 직원 문화 행사, 직원동아리, 직원대표회의,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 2024년에 직원역량강화사업에 130명, 16건 진행

- 연 4회 직원 문화 행사 실시, 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조직 문화 형성

나) 추진방향

- 자율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 ▷ 배경 : 전통적인 상하관계 중심의 소통 방식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협력을 저해하므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열린 소통 문화 확산 필요
- 직원 간 교류 활동 강화를 통한 협력적 조직문화 정착
 - ▷ 배경 : 직원 간 유대감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문화·여가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기반으로 한 협력적 조직문화 조성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가) 현황

- 2024년도에 안전관리 19건으로 동.하절기 점검, 소방대피훈련, 이용자 안전교육, 중대재해교육 진행
- 시설물관리 및 점검으로 274건, 시설 공사 8건 진행

나) 추진방향

○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 ▷ 배경 :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 작은 사고도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예방이 중요하며, 법적·제도적 의무가 강화

○ 설비 기기 및 배관 점검 확대 및 중단기 계획 수립

- ▷ 배경 : 설비 기기의 내구 연한이 도래되어 순차적으로 교체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배관이 점점 부식되어 파손되고 있어 교체 비용이 운영비를 초과하여 이에 대한 중단기 계획이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가. 비전

- 신월동의 장애인복지서비스 거점 시설(기관)으로 자리매김합니다.

나. 사업목표

- 신월동 거주 장애인의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 장애인에게 든든한 이웃이 되어주는 조직화 구축
- 장애인의 권익보장과 자립을 위한 활동지원사업 전개

다. 추진전략 및 발전방향

- 장애인복지사업 다각화로 신월동 장애인의 문화복지시설로 발돋움
- 신월동 지역자원 발굴 및 협력으로 지역친화 장애인복지사업의 활성화
-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자립 도모
- 장애인활동지원 활동지원사 관리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안정화

라. 주요사업

- 장애인복지
-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관리)
- 장애인활동지원사관리
- 운영관리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1) 장애인복지

가) 현황

- 2019년 11월 신월3동 신월누리복지센터 1층에 개소, 신월동 거주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해소를 목표
- 연평균 약 160명의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필라테스’, ‘요리교실’, ‘문신월문화데이’ 등 총 13개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 '모여라 누리동아리', '함께해요 줍깅', '신월사랑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어울리는 지역친화적 프로그램 운영 중
- 신월1동, 3동, 5동 주민자치회와 연 3회 협력하여 기후위기 인식 개선과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 독려를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진행
- 권익옹호팀에서 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신규 이용자 중 장애인복지사업 참여의 욕구 확인 시 신월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으로 연계되어 이용자의 욕구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나) 추진방향

- 이용자 맞춤형 복지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 배경 : 신월센터가 신월동 문화복지시설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범위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접근 필요. 이용자들의 욕구는 매우 다변화되어 있으나 기존 프로그램으로는 충족이 어려우며, 문화·여가 활동 참여 기회 부족은 삶의 질 저하 지역사회 소외로 작용. 이용자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과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반영하여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향상 지원 필요
-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한 주민조직화사업
 - ▷ 배경 : 신월동에는 주민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조직이 다수 활성화되어 있으며, 일부는 센터 프로그램 참여 및 보조 봉사활동가로 참여하여 센터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스몰스파크’ 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해요 줍깅’, ‘누리동아리’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주민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 신월동의 인적, 물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발굴 및 관리하고 협력하며, 지역주민과 장애인이 함께 참여 가능한 주민 주도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

영으로 신월동 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친화 장애인복지서비스 확산 필요

○ 이용자·개별 욕구에 기반한 재가서비스 확대

- ▷ 배경 : 건강상의 문제, 거동의 제약, 사회적 고립 등의 사유로 복지관 및 센터 이용이 어려운 신월동 장애인이 존재하며, 센터 중심의 장애인복지서비스만으로는 한계 발생.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 방문 모니터링을 통한 안부 확인 및 상황 확인, 지역주민 연계를 통한 일시적인 재가 돌봄 서비스 등 장애인 개개인의 안전한 일상 유지를 돕고 사회적 연결감 강화에 기여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물리·심리적 접근성 및 인지도 향상을 위한 전략적 홍보

- ▷ 배경 : 신월동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시설이 부족하고, 인접한 양천해누리복지관 목동 본관 대비 신월센터 인지도가 낮아 서비스 접근에 물리적, 심리적 장벽 발생. 신월동을 대표하는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신월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명확히 알리는 지역사회 게시판 및 현수막 활용, 시장 상가 홍보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인 홍보 활동으로 지역 인지도 향상과 잠재적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 장애인활동지원(이용자관리)

가) 현황

- 연 평균 약 19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회활동, 가사활동, 신체활동 등 다각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매월 평균 3명의 신규 이용자를 발굴 및 매칭 진행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현황, 만족도 및 욕구 파악,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모니터링 진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190명을 대상으로 연 1회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평균 약 190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만족도 조사 실시
-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이해, 서비스 이용 안내, 주의사항 안내 등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신규 이용자 기준 연 2회 진행하며, 전체 이용자 대상 연 1회 대면 교육 진행

나) 추진방향

-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접수 체계 수립
 - ▷ 배경 : 이용자의 고유하고 복합적인 욕구는 개인의 생애 주기와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 다변화하는 욕구에 효과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도적인 자립 생활 지원과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 필요. 초기 접수 단계부터 이용자 욕구를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접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평가 진행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 ▷ 배경 : 원활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이용자 및 보호자가 서비스 내용과 범위,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 올바른 이용 수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 정보의 불확실성이나 오인은 의도치 않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져 서비스 이용 전 과정을 점검·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 필요
- 활동지원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증진
 - ▷ 배경 :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전문 용어, 제한적인 정보 접근성이 장애인과 보호자가 활동지원서비스를 쉽게 이용하는 데 주요한 걸림돌로 작용. 활동지원사업을 장애인과 보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언어와 다양한 매체(온라인, 소식지, 설명

회 등)을 활용한 홍보를 통해 잠재적 이용자의 서비스 인지 및 접근 문턱 완화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2025 ~ 2026년	2027 ~ 2028년	202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접수 표준 운영 매뉴얼 제작 -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교육, 모니터링, 서비스 기록 점검 등) -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SNS) 및 소식지 활용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매뉴얼 현장 적용 및 개선 -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유선, 방문) - 지역사회 연계 강화와 소통 채널 확대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 매뉴얼 효과성 평가 및 최적화 - 부정수급 예방 체계 개선 및 강화 - 이용자 맞춤형 정보 접근성 평가 및 개선
씨앗기	성장기	결실기

3) 장애인활동지원사관리

가) 현황

- 2023년 평균 163명에서 24년 평균 174명으로 활동지원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이 중 5년 이상 장기근속자(2024년 기준 82명, 전체의 47%)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연 평균 190명의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2회 회기별 4시간 보수교육 진행하며 활동지원사 전문 역량 강화, 최신 서비스 정보 습득 및 서비스 질 향상, 이용자 대상 전문적·맞춤화된 지원 제공 유도
- 장기근속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활동지원사 해외연수를 진행하여 타 기관들과의 차별성을 부여하고 장기근속을 독려
- 활동지원사 직무 현황 파악을 위한 연 1회 직무 만족도 조사(서면, 온라인)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결과를 활동지원서비스에 반영

나) 추진방향

○ 활동지원사 직무전문성 강화 교육 체계 마련

- ▷ 배경 : 활동지원사 개인의 경험 및 숙련도에 따라 서비스 품질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다변화하는 이용자 욕구 및 돌발 상황에 현장에서 즉각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 발생. 체계적인 교육으로 명확하고 통일된 서비스 수행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 유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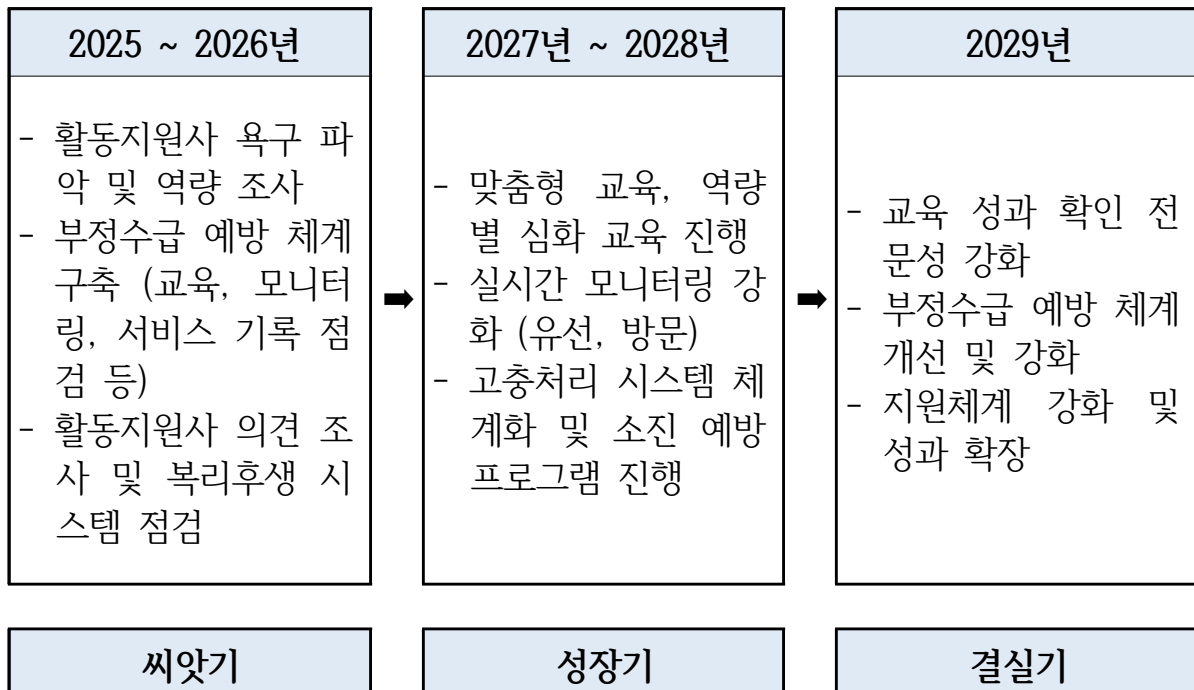
○ 활동지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부정수급 관리 강화

- ▷ 배경 :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강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자신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 서비스 제공 전 과정을 점검·관리하여 부정수급 예방 필요

○ 활동지원사 직무 만족도 향상 및 안정성 확보

- ▷ 배경 : 이용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역할의 특성상 신체적·정서적 소진 발생. 기존 복리후생 제도를 발전시켜 활동지원사의 소진을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기근속 유도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4) 운영관리

가) 현황

- 연 2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계획 수립, 평가, 예산, 고충처리 등 신월센터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원활한 사업 운영 도모.
- 월 1회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한 신월누리복지센터 내부 시설 정기점검 진행 (승강기, 소방 안전, 이용 공간 시설 점검 등).

나) 추진방향

-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 ▷ 배경 : 신월센터가 신월동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거점 기관으로서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운영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의사결정 체계 확립 필요

다) 연차별 추진계획





V. 부록

1.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활동
2.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
3.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결과
4. 중단기 발전계획 평가 체계(안)
5. 중단기 발전계획 지역사회 공유
6.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1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활동

가. TF 운영

- 운영 주체 : 관장 총괄, 국장 주재하에 각 팀장으로 구성된 TF 조직
- 운영 시기 : 2025년 2월 ~ 7월(회의 총17회기 진행)
- 운영 방식 : 주 1회 TF 회의 개최하여 각 팀 의견 수렴 및 주요 사안 논의
- 참여자 : 김경환(총괄), 이강조(주재), 김윤희, 문형식, 안재훈, 유종관, 안덕근, 김원종, 정미선, 김형준
- 역할
 - 주 1회 TF 회의 참여하여 팀 의견 개진 및 주요 사안 논의
 - 주 1회 각 팀별 회의 주재하여 진행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 재수탁 자료를 바탕으로 미션 수정, 비전과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 재수립
 -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 위한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
 - 중단기 발전계획 전 직원 공유 및 의견 수렴(중간, 최종)

나. TF 진행 일정

내 용 /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TF 구성 및 회의 개시	▶					
복지관 재수탁 자료 검토 등	▶					
미션, 비전,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 수립	▶	▶				
미션, 비전,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 전 직원 공유			▶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향 수립		▶	▶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 수립			▶	▶		
조직개편(안) 수립				▶	▶	

내 용 / 시 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조직개편(안) 전 직원 공유						▶
TF 활동 최종 점검 워크숍 실시						▶
결과보고						▶

다. TF 업무 분장

구 분	담당자	주요 업무
총괄 책임	김경환 관장	- TF 구성 및 승인 - 전 과정 검토 및 의사 결정 - 최종 승인
TF 주재	이강조 사무국장	- TF 회의 주재 - 일정 관리 및 조율
전략 기획 및 안 수립	정미선	- TF 회의록 작성 및 보고 - 계획안 수립 및 결과보고
TF 참여	김윤희, 문형식, 안재훈, 유종관, 안덕근, 김원종, 정미선, 김형준	- 팀회의 주재하여 진행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 주 1회 TF 회의 참여하여 팀 의견 개선 및 주요 사안 논의

라. 구성원 공감대 형성

- 주 1회 각 팀별 회의 실시하여 진행과정 공유 및 의견 수렴
- 중단기 발전계획 공유회(중간, 최종) 전 직원 참여 의견수렴 및 조정

2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

가. TF 구성 및 회의 개시

- 2025년 2월 운영법인(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복지재단)의 재수탁에 따라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관장 총괄, 사무국장 주재하에 각 팀장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조직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략기획팀장이 TF의 간사 역할을 맡아 계획 수립 과정의 체계적 관리와 회의 운영을 지원하였다.
- TF는 2025년 2월 11일 첫 회의를 시작하였으며, 초기 회의에서는 발전계획 수립의 목적과 방향성을 공유하였다. 특히, 복지관의 재수탁 관련 자료와 외부 환경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미션·비전·운영목표·추진전략 수립과 효율적이고 유연한 조직개편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였다.
- 첫 회의에서는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원칙을 논의하였으며, 지역사회 변화, 이용자 욕구, 복지정책 동향을 고려한 중점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자료 검토와 브레인스토밍을 병행하였다. 또한, TF의 활동 일정과 회의 진행 방식, 중간 점검 및 전 직원 공유 절차 등을 확정하여 발전계획 수립의 체계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 2월 11일, 1차 회의 진행]

나. 복지관 재수탁 자료 검토 및 환경변화 파악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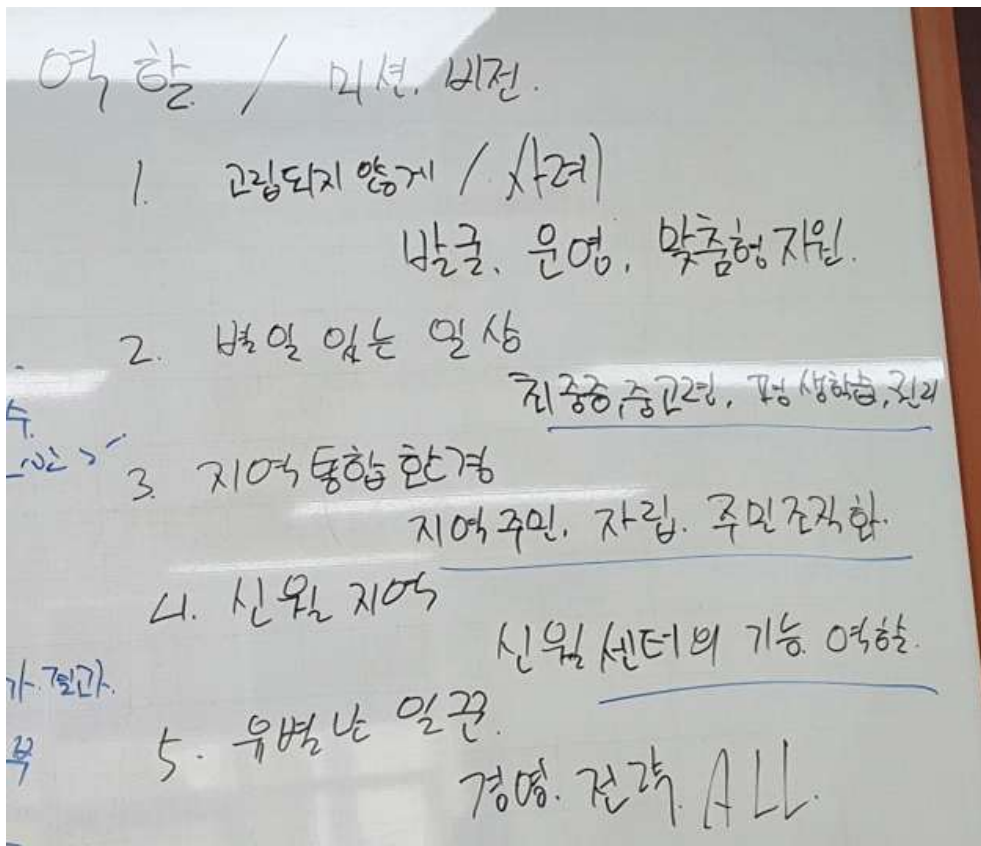
- 복지관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복지관 재수탁 자료 검토와 대내외 환경변화와 정책 자료 검토가 이루어졌다. 먼저, 국가적 차원의 장애인 정책 방향으로 제시된 제6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을 공유하였다. 여기에는 탈시설 지원과 자립생활 지원, 커뮤니티 케어, 맞춤형 서비스와 권리 보장 강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향후 복지관 운영이 단순한 서비스 제공을 넘어, 당사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리 실현을 중심에 두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 다음으로, 양천구의 지역사회 특성을 점검하였다. 고령화가 심화되는 한편, 교육 인프라의 발달로 청소년 인구 비율이 높다는 특징이 드러났다. 또한 신월동은 복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주거 밀집지역으로서 대규모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향후 인구 이동과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임이 지적되었다. 이는 복지관이 지역사회 거점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함을 의미하였다.
- 마지막으로, 위기대응 실천전략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2023년부터 대두된 사회적 고립, 기후위기, 스마트 정보기술 격차, 안전·보건 관리 문제는 장애인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었다. 이에 따라 TF는 복지관이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재난·위기 상황에서도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 이러한 검토와 공유 과정을 통해 TF는 복지관의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의 핵심 배경 자료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환경변화 속에서 복지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공통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다. 미션, 비전,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 수립

- 중단기 발전계획 TF는 재수탁 자료 검토와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복지관이 향후 지향해야 할 미션·비전·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먼저, 미션과 비전은 단순히 기관의 역할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의 권리와 지역사회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TF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복지관의 정체성을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만들어가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이를 미션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비전은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 실현 ▲지역사회와 각별한 마을 조성 ▲변화를 주도하는 유별난 일꾼 양성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 운영목표 수립 과정에서는, 미션과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중간 단계의 전략 목표를 정리하였다. TF는 정책 동향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누구에게나 ‘별일 있는 일상’ 만들기 ▲각별한 사이를 만드는 지역통합환경 조성 ▲신월지역의 장애인복지 중심이 되는 센터 운영 ▲별일 있는 일상 지원하는 유별난 일꾼 육성을 운영목표로 설정하였다.



[미션, 비전 실현을 위한 운영목표 수립]

- 추진전략은 이러한 운영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다. TF는 기존 복지관의 강점을 발전시키면서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협력체계 구

축 ▲최중증 및 중·고령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열린복지관 운영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 친화형 복지사업 수행 ▲전문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인재개발 시스템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제안하였다.

- 결과적으로 미션·비전·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 수립 과정은 지역사회 변화 속에서 기관의 존재 이유와 향후 5개년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과정이 되었다.

라. 미션, 비전,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 전 직원 공유

- TF에서 마련한 미션·비전·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은 단순히 TF 차원의 논의 결과에 머물지 않고,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TF는 수립된 안을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2025년 4월 1일, 직원 공유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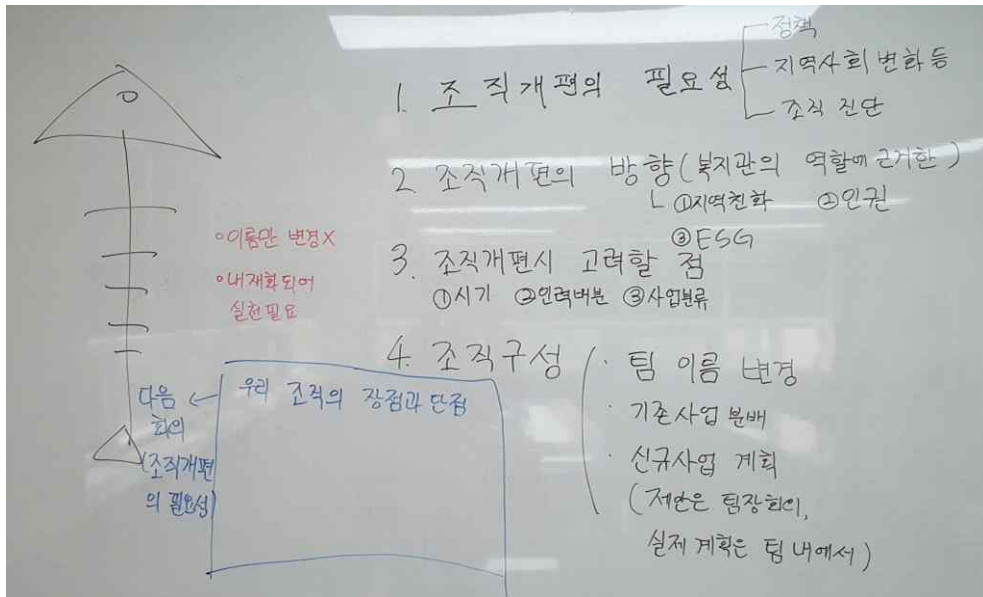
- 2025년 4월 1일 실시한 공유회에서는 먼저, TF가 재수탁 자료 검토와 환경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어서 미션과 비전의 핵심 의미, 운영목표의 구체적 방향, 그리고 추진전략이 기관 운영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직원들은 해당 내용을 들으며 기관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해하고, 각자의 업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민할 수 있었다.

- 이 과정을 통해 미션·비전·운영목표 및 추진전략(안)은 복지관 전체 구성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조직 운영의 지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전 직원 공유 과정은 발전계획이 일방적인 선언이 아닌,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합의된 방향임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마.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방향 수립

-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TF는 기관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진단과 조직개편 방향 설정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다.



[조직개편 논의절차 정리]

- 먼저, 조직진단 단계에서는 복지관의 현행 조직 구조와 인력 배치, 업무 분장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일부 업무의 중복, 팀 간 소통의 한계, 특정 인력에 집중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드러났다. 또한, 급변하는 복지 환경과 다양한 이용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조직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다음으로, 정책과 지역사회 변화 등 파악 단계에서는 먼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후위기 대응 및 디지털 격차 해소 등으로 확대·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정책 기조는 복지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요구한다.

- 지역사회 변화 또한 복지관의 새로운 과제로 부상하였다. 인구 고령화, 1인가구 증가,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주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욕구 증대 등은 기존의 서비스 방식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복합적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지역 내 복지 자원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복지관의 조정자이자 협력 촉진자로서의 기능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
- 이러한 조직진단 결과와 정책·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TF는 조직개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마련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 네트워크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조직 구조 속에 반영하여 복지관이 지역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둘째, 전문성 강화와 역할 명확화이다. 팀별 주요 기능을 재정비하고,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각 팀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 셋째, 유연성과 대응성 확보이다. 급변하는 사회·정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 넷째, 확장성과 혁신성 추구이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외부 자원 연계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복지관의 미래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 과정에서 TF는 단순히 인력 재배치나 팀 명칭 변경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관의 미션과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결과적으로 조직진단 및 개편 방향 수립은 향후 5개년 발전계획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복지관이 지역사회 변화와 장애인 복지 정책 흐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바.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 수립

- 중단기 발전계획 TF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복지 정책 변화 속에서 복지관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이에, 2023년 12월 수립한 ‘환경변화 등 미래서비스 대비를 위한 위기대응 실천전략’을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 복지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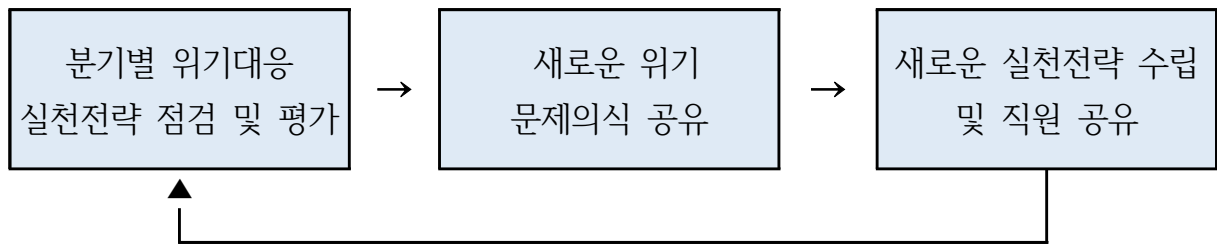
- 이에 따라 TF는 ‘환경변화 등 미래서비스 대비를 위한 위기대응 실천전략 이행사항’ 점검표를 제작하고, 분기별로 각 팀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점검표는 ▲고립 대응 ▲기후위기 대응 ▲스마트 정보기술 대응 ▲안전·보건 관리 ▲신규 위기요소 파악 등 5대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영역별로 세부 점검 항목과 실행 여부를 기록하도록 설계되었다.
- 점검 방식은 단순히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천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실질적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신규 위기요소 파악 및 대응 준비 항목을 별도로 두어 최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새로운 위기 요인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전략으로 대응 가능한지, 또는 전략 수정·신규 전략 수립이 필요한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환경변화 등 미래서비스 대비를 위한 위기대응 실천전략 이행사항		
팀 명 : 0000팀 점검시기 : 2025년 1분기		
1. 고립 대응		*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점검 항목	실행	미실행
1) 사회적 관계 취약계층(발달장애인, 노년층, 1인가구 등)에 대한 접근		
① 고립 위험 대상자 발굴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발굴, 고립 위험 파악, 발굴지킴이 교육)?	O	
[실천내용] -		
② 사회적 관계망이 적은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자조모임, 문화여가, 가정지원, 역량강화 등 참여 독려)?		
[실천내용] - -		

[위기대응 실천전략 이행사항 점검표]

-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복지관이 사전예방-대응-사후지원의 전 과정을 점검·관리하는 도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각 팀별로 분기별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종합하여 운영 평가서에 반영함으로써, 위기 대응 전략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

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

- 결과적으로, 이 체계는 복지관이 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 조직개편(안) 수립

- 중단기 발전계획 TF는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시된 운영목표와 추진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중단기 발전계획 TF를 중심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기존 조직의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마련하였다.
- 우선, 기존 조직의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고, 정책·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새로운 역할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구조 마련을 논의하였다. 특히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 위기대응 실천전략 강화,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를 위해 TF는 복지관 핵심 기능을 기준으로 조직 개편 방향을 설정하였다.
- 조직개편(안)은 ▲미션·비전에 부합하는 기능 중심 조직 ▲팀별 전문성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구조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 서비스를 촉진하는 체계 ▲새로운 복지 수요와 미래 서비스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확장성을 주요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향 아래 기존 팀의 명칭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일부 기능을 재배치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기존의 조직은 1국 9팀 체계로 운영되며, 기능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기능 중심의 운영은 서비스의 세분화와 전문성 확

보에는 장점이 있었으나, 지역사회와의 연결성, 서비스 간 연계성,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 이에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주민친화적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8개 팀 체계와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신월센터로 조직을 재편하였다. 새롭게 구성된 조직은 관장과 사무국장을 중심으로 1국 9팀 체계로 개편되었다.



[중단기 발전계획 TF의 조직 개편 방안 논의]

- 팀별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사람이음팀은 사례 발굴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권익옹호와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채움생활팀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주거환경 지원을 강화하며, 생활환경 개선과 가정건강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행복동행팀은 지역사회 연계와 네트워크 강화를 담당하며, 마을만들기 행사, 편의시설 지원(유니버설 디자인), 장애인식개선, 자원봉사·후원 활성화,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적 지역복지를 실현한다. 자립성장팀은 자립생활지원 및 직업적응 훈련과 진로상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을 지원한다. 배움문화팀은 평생교육, 문화예술, 특수교육, 미술활동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건강누리팀은 물리활동, 수중활동, 놀이활동, 재활운동, 아동발달지원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 기능 향상과 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함께돌봄

팀은 보건복지부 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어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포괄적 돌봄 서비스를 전담한다. 누리지원팀은 기관의 기획, 평가, 회계, 인사, 시설 운영 등을 담당하여 복지관 운영의 기반을 책임진다. 마지막으로 신월센터는 권역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장애인활동지원과 신월지역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복지 허브로 기능한다.

- 아울러 부속시설로는 희망일곱터, 드림하우스 공동생활가정, 해누리하우스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인권위원회, 통합사례관리위원회, 긍정행동전환 솔루션위원회,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여 기관 운영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 이번 조직개편은 지역친화성과 서비스 통합성을 강화하고,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복지관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 조직개편(안) 전 직원 공유

- 2025년 7월 1일 복지관은 TF를 통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을 모든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여, 개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개편안의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중단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각 팀의 역할 변화, 신설 기능, 협력 체계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직원들에게 발표하였다.
- 공유 과정에서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직원들의 의견과 우려를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설명회와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고, 팀별 회의와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직원들은 개편안이 실제 업무 환경과 서비스 제공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TF는 이를 반영하여 개편안을 보완하였다.
- 이와 같은 전 직원 공유 과정은 조직개편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직원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향후 개편안 확정 및 실행 과정에서도 직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7월 1일, 직원 공유회 진행]

자. TF 활동 최종 점검 워크숍 실시

-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 활동은 각 단계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주요 성과를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를 종합·정리하기 위해 2025년 7월 16일 최종 점검 워크숍을 1박2일로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TF가 추진해 온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고, 미션·비전·운영목표 및 추진 전략, 조직개편(안), 위기대응 실천전략 등 주요 결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워크숍에서는 먼저 TF 활동 경과와 성과물을 총괄 보고한 뒤, 각 분야별 세부 내용을 점검하였다. 참석자들은 논의 과정에서 도출된 안건이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지,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향후 실행단계에서 예상되는 과제와 보완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실행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하였다.
- 최종 점검 워크숍은 TF 활동의 결실을 공유하고, 복지관 전 직원과 지역사회 참여 속에서 계획을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TF 활동은 단순한 안 마련에서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춘 중단기 발전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3 중단기 발전계획 수립 결과

가. 미션(Mission)

-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나. 비전(Vision)

-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각별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변화를 주도하는 유별난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 운영목표 및 추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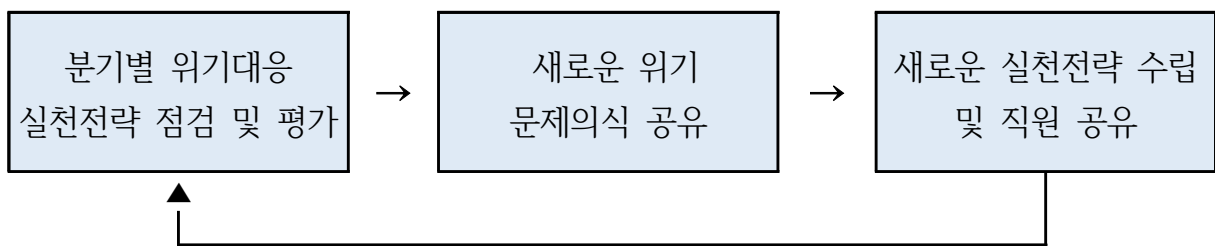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운영목표 1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1-1. 고립가구 발굴을 위한 현황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1-2.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1-3. 장애인의 개별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목표 2	누구에게나 '별일 있는 일상' 만들기
추진전략	2-1. 최종증 및 중·고령 발달장애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2-2. 필요한 배움을 선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 2-3. 보통의 삶을 위한 일상 속 권리강화
운영목표 3	각별한 사이를 만드는 지역통합환경 조성
추진전략	3-1. 열린복지관 운영으로 지역주민 참여 확대 3-2. 장애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자립서비스 및 기관 연계망 확대 3-3. 지역주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관계형성 프로그램 운영

구 분	내 용
운영목표 4	신월지역의 장애인복지 중심이 되는 센터 운영
추진전략	4-1.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지역 친화형 복지사업 수행 4-2. 누구나 어울리는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활성화 4-3. 신월 지역 맞춤형 방문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목표 5	별일 있는 일상 지원하는 유별난 일꾼 육성
추진전략	5-1. 전문 장애인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인재개발 시스템 강화 5-2.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확립 5-3. 지속발전을 위한 인사, 예산, 사업관리 등 ESG 시스템 구축

라. 우리의 다짐

- 별일 있는 오늘로 기대되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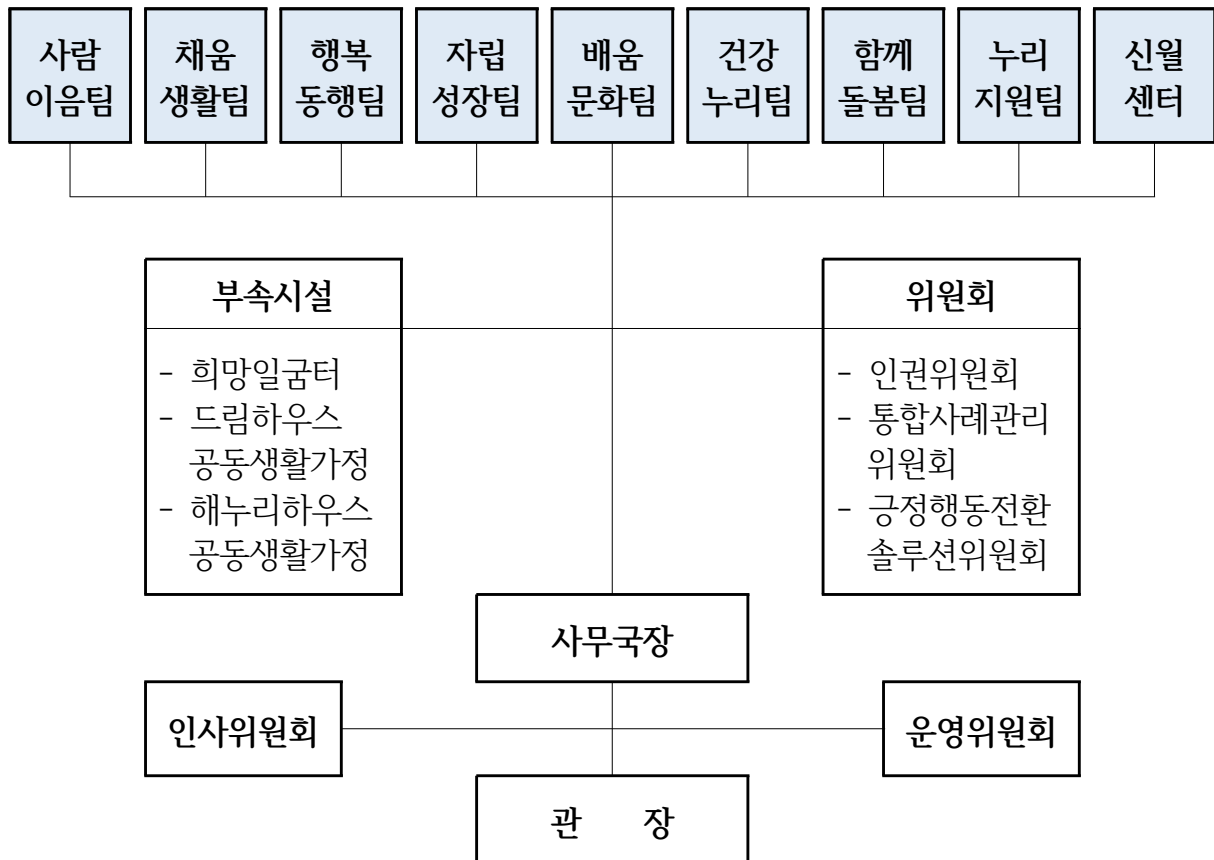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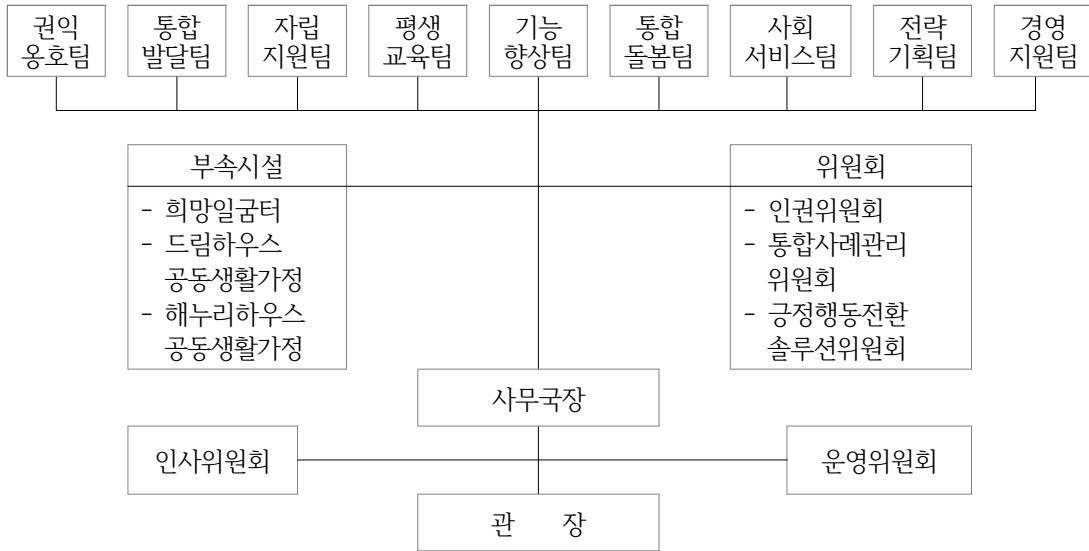
마.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체계



- ‘환경변화 등 미래서비스 대비를 위한 위기대응 실천전략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기반 분기별 위기대응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실시
- 분기별 실천전략 점검 및 평가 통해 새로운 위기(정책 개편, 사회적 위기 등)에 대한 문제의식 공유
- 새로운 위기의 기존 전략 대응 가능 여부 점검 및 새로운 실천전략 수립 후 직원 공유

바.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

○ 조직구성(1국9팀)



○ 팀별 주요사업

팀명	사람이음	채움생활	행복동행	자립성장	배움문화	건강누리	함께돌봄	누리지원	신일센터
역할	이용자 중심의 사례관리	주거환경, 일상생활	지역사회 연계 및 네트워크	자립과 경제활동	평생교육, 문화예술, 체육	건강, 재활	통합돌봄	기획, 총무	신일복지
주요사업	사례발굴	일상생활 지원	마을 만들기	진로상담 및 직업평가	평생교육	심리운동	통합돌봄	기획운영 (계획 및 평가)	장애인 활동지원
	사례활동	생활환경 개선	편의시설 지원	직업적응 훈련	주민참여	놀이활동	솔루션 위원회	기획운영 (위원회)	활동 지원사 관리
	권익옹호	중장년 발달 장애인 지원	홍보	전환교육	문화여가 지원	심리음악		직원역량 강화	장애인 복지
	사회복지 현장실습	가정건강 지원(물리)	자원봉사	자립생활 지원	청소년 통합지원	물리활동		조직문화	운영관리
	접수상담 -일반	뇌병변 영유아 조기개입	후원, 골프대회	재가 장애인 자립지원	해누리 미디어	작업활동		고객만족	주민 조직화
	통합사례 회의	한가위 행사	장애인식 개선	고용	심리미술	수중활동		인적 자원관리	
	지원계획 회의		네트워크	전문직종 훈련	특수교육	언어활동		대관	
			대보름 행사	장애인 복지 일자리	돌봄가족 휴가제	재활운동		안전관리, 시설환경 관리	
				그린코디 네이터	해누리 보치아 대회	아동발달 지원		차량관리, 지원	
				접수상담 -자립	노인복지 증진	접수상담 -재활		식당운영	
				취업 박람회	누리네 체육교실	기능향상 컨설팅		인사	
				정원	느린 학습자	양천 지식인		회계	
				그룹홈 운영관리	송년 가족잔치			수납, 서무	
				전문 탁구모임					

4 중단기 발전계획 평가 체계(안)

가. 평가 체계의 목적

- 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점검
- 계획 대비 추진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다음 단계 발전계획에 환류
- 변화하는 환경과 복지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 보완

나. 평가 영역 및 내용

- 전략적 성과 : 운영목표별 추진전략 이행 정도와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대 수준 평가를 통해 복지관이 지향하는 가치와 방향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점검
- 조직 운영 성과 : 조직개편 실행 여부 및 효과, 팀별 목표 관리 및 성과 달성도, 직원 역량 강화 및 참여도 등의 평가를 통해 조직 내 변화 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측정하고, 계획 대비 추진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여 다음 단계 발전계획에 환류
- 서비스 성과 : 대상자 욕구 반영과 만족도, 지역친화형 복지 실현 정도 평가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과 이용자의 실제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지 점검

다. 평가 방법

- 정기 점검 : 분기별 평가를 통해 팀별 추진성과 공유 및 보완점 확인
- 중간 평가 : 매년 연말 연차별 목표 달성도 점검, 팀별 주요 사업 성과 평가, 기관 차원의 종합평가를 포함한 연차별 성과평가 실시
- 종합 평가 : 5개년 발전계획 종료 시 종합평가 진행

라. 평가 절차

- 성과 수집 : 정량지표(성과수치, 참여율, 예산집행률 등)와 정성지표(직원·이용자 만족도, 협력기관 평가 등) 수집
- 성과 분석 : 목표 대비 달성도 평가, 부진 원인 및 우수사례 도출
- 환류 및 개선 : 평가 결과를 차기 사업계획 및 조직 운영 개선에 반영

5 중단기 발전계획 지역사회 공유

가. 기자간담회 실시

1) 개요

- 진행일자 : 2025년 8월 7일
- 참석자 : 지역 언론사 기자 5명
- 진행방식 : 발전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 오찬 간담회

2) 주요 내용

- 새로운 미션·비전·운영목표·추진전략을 포함한 중단기 발전계획 발표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개편(안) 설명 및 필요성 공유
- 발전계획 수립 과정(재수탁 자료 검토, 환경분석, TF 운영 등) 소개
- 질의응답을 통해 언론 및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소통 구조 마련



[2025년 8월 7일, 기자 간담회 진행]

나. 중단기 발전계획 기획보도 시리즈 배포

1) 개요

- 보도제목 :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 배포기간 : 2025년 8월 2주 ~ 9월 1주, 총 4회
- 배포방식 : 주제별 시리즈 형식으로 보도자료 순차 배포
- 배포결과 : 양천신문 등에 기사 총 43건 게재

2) 기획보도 시리즈 주요 내용

- 1탄, 복지의 구조를 ‘다시 묻고, 다시 짓다.’
 - : 복지의 구조를 성찰하고 ‘다시 묻고, 다시 짓는’ 관점에서 중단기 발전계획 발표
 - :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방향성 제시
- 2탄,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이 돌보는 시대를 묻다
 -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돌봄이 더 이상 가정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공동과제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
 - :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필요성 강조
- 3탄, 보통의 삶을 향한 권리, 일상에 스며들다
 - : 장애인의 보통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권익옹호·자립지원·당사자 중심 실천 강화 필요성 강조
 - : 권리를 일상 속에서 실현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방안 모색
- 4탄, 장애인의 삶을 잇는 복지, 양천구 지역의 틈을 메우다
 - : 신월센터 거점을 기반으로 한 지역 특화 복지서비스 확대 방안 제시
 - : 양천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지역사회 상생 모델 제안

작성기관 : 양천해누리복지관

작성일자 : 2025. 8. 12. (화)

기사문의 : 전략기획팀 김재인 070-4804-6053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기획특집①] 복지의 구조를 ‘다시 묻고, 다시 짓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별일 있는 오늘’ 을 위한 중단기 발전계획 발표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②]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이 돌보는 시대를 묻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③] 보통의 삶을 향한 권리, 일상에 스며들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④] 장애인의 삶을 잇는 복지, 양천구 지역의 틈을 메우다

1. 변화의 물결, 양천구에서 시작되다

양천구가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지역 중심의 전략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양천구 유일의 장애인복지 전문기관, 양천해누리복지관이 있다.

복지 수요는 급격히 다변화하고 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 고립가구, 복합장애인의 증가 속에서 행정 중심의 대응만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에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25년 8월부터 새로운 조직체계와 중단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별일 있는 오늘’ 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본격화한다.

이번 발전계획은 단순한 운영방식 개선이 아니다. 양천구 장애인복지를 지속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다시 설계하기 위한 리디자인이며, 복지관은 ‘서비스 제공자’ 에서 ‘지역의 이웃’ 으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장애인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로 자리매김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새로운 미션으로 “섬김과 사랑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를 선언했고, 비전으로는

- 장애인의 별일 있는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 지역사회와 각별한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 변화를 주도하는 유별난 일꾼이 되겠습니다. 라는 세 가지 축을 제시했다.

이 선언은 장애인을 ‘지원을 받는 존재’ 로 보는 인식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주체이자

이웃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복지철학을 담고 있다.

2.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

복지관은 이번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지원체계 ▲누구에게나 별 일 있는 일상 만들기 ▲각별한 관계를 만드는 지역통합환경 ▲신월지역 중심센터 역할 ▲유별난 일꾼 육성이라는 5대 운영목표와 15개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 전략은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 2026년부터는 돌봄 재구성, 권리 중심의 자립지원, 지역사회 통합모델 등 사업 전반에 실행력을 부여하는 체계로 반영될 예정이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김경환 관장은 “이번 발전계획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의 약속”이라며, “앞으로의 10년은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보다 누구의 일상에 어떻게 닿을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이번 보도자료를 시작으로 총 4편에 걸친 중단기 기획 시리즈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단일 기관의 변화를 넘어 양천구 장애인복지의 흐름을 새롭게 그려내는 지역 공동의 기획이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중단기 계획 시리즈 보도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략기획팀(☎070-4804-605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설명 : 복지관 전경,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이용인 모습 >

작성기관 : 양천해누리복지관
 작성일자 : 2025. 8. 19. (화)
 기사문의 : 전략기획팀 김재인 070-4804-6053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기획특집②]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이 돌보는 시대를 묻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중고령 발달장애인' 가정 돌봄을 넘어 지역의 과제로 -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①] 복지의 구조를 '다시 묻고, 다시 짓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③] 보통의 삶을 향한 권리, 일상에 스며들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④] 장애인의 삶을 잇는 복지, 양천구 지역의 틈을 메우다

1. 조용한 위기,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돌아볼 시간

「신정동에 사는 73세 이모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44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그는 여전히 자녀의 끼니를 챙기고 병원 동행까지 책임진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아이가 원치 않으면 소용 없어요. 제가 없으면 누가 애를 돌보죠?”

신월동의 김모 씨 형제는 부모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졌다. 자립 준비 없이 시작된 일상은 청소, 식사부터 막막하다. 도움을 요청하는 법도, 방법도 모른다.」

이들은 양천해누리복지관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만난 실제 사례다. 고령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돌봄 구조는 한계에 다다랐다. 건강, 주거, 정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위기는 이미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중 만 40세 이상은 29%다. 양천구도 전체 발달장애인 1,593명 중 404명(25.4%)이 중고령층이다. 증가하는 이들의 삶은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지역사회가 응답할 때다.

2. 함께 사는 지역, 돌봄의 중심이 되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25년 중단기 발전계획을 통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모델 개발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주요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돌봄 공백 위험군 조기 발굴
- 의료·행정·이웃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
- 거주지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
- 지역 중심의 사례관리 및 돌봄 네트워크 강화

이는 복지관 중심의 일회성 서비스가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설계하려는 시도다. 더 이상 '누가 돌볼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이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김경환 관장은 “이제는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돌봄이 필요하며, 그 해답은 지역 안에서 찾아야 한다.”며, “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지역 안에서 찾는 것이야말로 양천구 복지의 다음 10년을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이번 중단기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과의 연계를 통해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 시리즈 보도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권익옹호팀(☎070-4804-60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설명 :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

작성기관 : 양천해누리복지관
 작성일자 : 2025. 8. 26. (화)
 기사문의 : 전략기획팀 김재인 070-4804-6053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기획특집③] 보통의 삶을 향한 권리, 일상에 스며들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장애인의 하루에 특별함을 더하다 -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①] 복지의 구조를 ‘다시 묻고, 다시 짓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②]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이 돌보는 시대를 묻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④] 장애인의 삶을 잇는 복지, 양천구 지역의 틈을 메우다

1. 장애인의 하루,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준비하지만, 맞는 일자리를 찾기조차 어렵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려 해도 계단과 환승의 벽에 가로막힌다. 저녁 무렵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고 싶지만, 이동의 불편과 공간의 제약으로 발길을 돌릴 때가 많다.”

누군가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흐름이지만, 많은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실현하기 어려운 일상이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고,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은 35.2%에 달했다. 지역사회 안에서 교육·취업·문화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은, 단순한 복지 지원 부족이 아니라 삶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양천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의 하루는 원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곳에 가고, 원하는 사람과 어울리는 당연한 경험이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로 남아 있다.

2. 작은 순간이 모여 만드는 ‘별일 있는 삶’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25년부터 새로운 미션으로 ‘장애인의 별일 있는 오늘’을 선포했다. 여기서 ‘별일’은 흔히 생각하는 좋지 않은 일이 아니다. 무료하고 반복적인 일상에 기쁨과

특별함을 더하는 순간을 뜻한다.

- 동네 책방에서 글을 배우고,
-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전시회에 참여하고,
- 직접 고른 재료로 요리를 해 가족과 나누는 일.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 장애인의 하루를 달라지게 하고, 삶을 '별일 있는 삶' 으로 바꿔낸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활동지원·자립지원·권리교육을 넘어,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는 일상 경험, 장애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맞춤형 지원, 배움과 참여의 기회 확대를 지역 속에서 펼쳐가고 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김경환 관장은 “장애인의 별일 있는 삶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누릴 수 있는 순간들”이라며, “양천구가 그러한 일상이 가능해지는 지역이 되도록 복지관이 함께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장애인의 '별일 있는 삶' 을 지역 안에 확장해 갈 계획이다. 일상 속에서 문화·여가·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기관·학교·기업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커뮤니티 돌봄 강화 같은 미래 과제에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 시리즈 보도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립지원팀(☎070-4804-604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설명 : 자립 및 권익옹호 관련 활동 모습 >



작성기관 : 양천해누리복지관

작성일자 : 2025. 9. 2. (화)

기사문의 : 전략기획팀 김재인 070-4804-6053

양천구 장애인복지, 새로운 10년을 디자인하다

[기획특집④] 장애인의 삶을 잇는 복지, 양천구 지역의 틈을 메우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지역 맞춤형 복지로 삶의 균형을 설계 -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①] 복지의 구조를 '다시 묻고, 다시 짓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②] 중고령 발달장애인, 지역이 돌보는 시대를 묻다

[양천해누리복지관 기획특집③] 보통의 삶을 향한 권리, 일상에 스며들다

1. 지역과 함께 설계하는 미래형 복지

급변하는 복지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일상과 지역사회를 더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양천해누리복지관이 조직개편에 나섰다. 기존의 기능 중심 구조를 넘어 사람 중심·생활 밀착·지역 연계라는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사람이음팀', '채움생활팀', '행복동행팀'으로 재편한 것이다.

세 팀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현장의 요구에 세밀하게 대응한다.

①사람이음팀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살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찾아내고, 상담과 권익옹호를 통해 든든한 지원자가 된다.

②채움생활팀은 집과 생활을 돌보며, 장애인과 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이어가도록 돕는다.

③행복동행팀은 마을과 이웃을 연결하며, 자원봉사·후원·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한 복지서비스를 나누는 차원이 아니다. 지역 곳곳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삶과 지역사회의 틈을 메우기 위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복지관은 장애인과 지역을 잇는 다리로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2. 신월센터, 지역맞춤형 장애인복지의 거점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신월센터를 중심으로 지역특화형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 양천구 신월 지역의 장애인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월센터는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복지 공동체 조성을 목표로 ▲주민 동아리 육성 ▲고립·고독가구 발굴과 맞춤형 서비스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간 개방 및 주민 교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신월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장애인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시설 확장 공사를 통해 운동기구와 교육 기자재를 추가 설치하고, 여가·문화·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생활 속 고립을 예방한다. 장애인이 자립 생활과 문화 향유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종합적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며, 지역 내 소외와 배제를 막는 안전망 역할을 담당한다.

신월센터는 접근성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지역과 장애인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전문 거점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중단기 발전계획 시리즈 보도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사회서비스팀(☎070-8897-50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사진 설명 : 신월동 지역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활동 모습 >

6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가.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시행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최종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024년 시행. 최종증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함
-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23~)’을 통해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의사소통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강조
- 서울시는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24시간 돌봄 지원 모델’을 추진 중
- 양천구는 거주지 기반의 돌봄 연계망이 부족하여, 지역 내 의료·복지·교육 자원의 통합적 연계 필요성이 부각됨

2) 복지관 대응 방안

- 단순한 돌봄에 국한하지 않는 평생설계 관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절한 체계 마련 필요
- 주간활동·방과후·단기보호 프로그램 간 연계 강화
- 지역사회 자원(의료, 돌봄, 교육)과 협력한 맞춤형 케어모델 개발
- 가족 부담 경감 위한 휴식·심리 지원 체계 마련

나. 탈시설 정책 추진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보건복지부는 2021년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고, 2041년까지 단계적 탈시설을 목표로 함



- 서울시는 서울시는 선도적으로 거주시설 폐쇄와 그룹홈 확충,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서비스 확대를 시행
- 양천구는 지역 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및 생활 기반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 자립생활주택·자조모임 확대 필요

2) 복지관 대응 방안

- 지역사회 정착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지역 기반의 자원연계, 네트워크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립생활센터, 주거지원기관과 협력한 지원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주거·일상생활 기술 훈련)
- 탈시설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례관리 강화

다. 고립(사회적 고립·고독)의 사회적 문제 심화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기본법’ 시행(2023년)으로 장애인 포함 사회적 고립계층 발굴·연계 강화
- 서울시는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제정, 고립 위험군을 위한 방문형·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양천구는 양천구는 1인 가구와 중증장애인의 고립 문제 심화, 지역 내 이웃 돌봄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 조성 필요

2) 복지관 대응 방안

- 현재 복지관은 다양한 고립지원 사업(연리지, 동행, 식생활지원, 맞춤형 물품지원, 이웃만들기, 독립적권익옹호, 시민옹호, 옹해야) 운영 중임
- 고립 위험군(중고령, 발달·정신장애인) 발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두 가지 관점의 대응 필요
- 자조모임·동아리 활성화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방문형 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다각적 참여 경로 마련
- 발굴 고립장애인 대상의 심리지원 등 특성화 프로그램(일반 프로그램 투입이 아닌) 고민 필요

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행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 맞춤형 서비스 선택권 강화함.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개선과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하여 2026년 본사업 시행 예정



- 서울시는 2023년 시범사업 참여, 활동지원·주거·돌봄 서비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
- 양천구는 개인예산제 적용을 위한 사례관리 체계 미흡, 이용자 욕구 기반 맞춤형 예산 배분 필요

2) 복지관 대응 방안

- 이용자의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 역량 강화
- 이용 계획 수립 지원 등 이용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예산 사용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 지역 내 다른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
- 제도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에 대한 정보를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

마. 중고령 장애인 지원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2024년 2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 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주요 목적은 고령, 질병, 장애, 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등의 돌봄 지원 통합·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 보건복지부는 고령화되는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해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강화'를 추진 중
- 서울시는 '중고령 장애인 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관리·자립역량 강화, 여가·사회참여 지원을 확대
- 양천구는 노인과 장애인이 동시에 늘어나는 구조적 특징으로, 건강관리·여가·돌봄 복합서비스 수요 증가

2) 복지관 대응 방안

- 중고령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필요
- 중고령 장애인 대상 건강·여가·노후 설계 프로그램 운영
- 세대별 맞춤 돌봄 서비스 개발(예: 노인복지관 연계형 프로그램)
- 재활·치매예방·사회적 관계망 회복 중심 지원 확대

바. 정신장애 지원

1)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

- 2021년 6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으로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됨
- 2024년 2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 종합사회복지관 내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운영 근거를 신설함
-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정신장애인 지원체계 강화, 탈원화 정책 추진
- 서울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중심으로 위기대응, 주거·일자리·사회참여 통합지원 확대
- 양천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중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의 주거·직업재활 기회 부족. 지역사회 연계망 확충 필요

2) 복지관 대응 방안

- 자립지원, 권익옹호 역할 중요성 대두 대비 : 종합사회복지관에 정신보건 전문요원 배치되면서 종합사회복지관 위주로 정신장애인 지원 이루어질 수 있음. 다만, 권익옹호, 자립지원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역할의 중요성 보다 강조될 수 있음
-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지원을 위한 전문성 역량강화 필요
-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직업, 주거, 정신건강, 경제 등 맞춤형 사례 관리·상담·지원 체계 확립
-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병원 등과 협력한 연계서비스 제공
- 편견 해소를 위한 장애인식개선·주민통합 활동 확대

사. 정책 및 지역사회 변화에 따른 복지관의 역할 제언

- 복지관의 명확한 역할 정립 : 장애인 관련법이 세분화되면서 신규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음. 장애인복지관의 위기로 인식하고 우리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
- 지역기반 통합 플랫폼 기능 강화 : 지역 내 기관·단체와 협력망을 구축해 돌봄, 의료, 주거, 고용, 문화 등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 수행
- 개인맞춤형 서비스 설계 역량 확대 : 발달장애인, 고령장애인, 정신장애인 등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체계 마련
- 자립·포용적 지역사회 조성 : 주거 및 사회 적응 등 자립지원과 더불어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고립 완화 및 포용적 환경 형성
- 위기 예방 및 조기 대응 기능 강화 : 고립, 정신건강 문제, 중증장애인 돌봄 공백 등 위험요소 사전 발굴하여 사례관리 및 방문형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신속 대응
- 장애인식개선과 주민참여 확대 : 지역사회에 장애 인권·자립·돌봄 인식 확산 및 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사회통합 촉진

양천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2025년 ~ 2029년)

발행일	2025년 9월
발행인	김경환
발행처	양천해누리복지관
	전화 02-2061-2500
	팩스 02-2061-2525
	홈페이지 www.ycsupport.or.kr
